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대학생 문제음주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지속적 문제음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박 아 름

대학생 문제음주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지속적 문제음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권 석 만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박 아 름

박아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음주의 세 가지 측면, 즉 음주량과 음주빈도 그리고 음주관련 부정적 결과(이하 음주문제)를 고려하여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과 성격에 따라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문제음주 대학생 중 문제음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I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문제음주의 세 가지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과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268명의 대학생 참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친구의 영향이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의 예측 요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고양동기와 문제 중심적 대처의 예측력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 음주기대와 대처동기의 예측력이 높았다. 성격 특성과 음주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각추구 성향은 고양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경증 성향은 대처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남학생에 한해서 감각추구 성향은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매개를 통해 음주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문제음주 대학생 중 더 큰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하위집단의 특성을 횡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적응성을 고려하였다. 적응성은 학업 성실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음주의 세 가지 측면 모두 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 중심적 대처 양식과 신경증 성향, 스트레스 수준이 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다.

연구 II의 목적은 연구 I에서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이 종단적으로 문제음주의 지속성을 예측하는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

거 문제음주 양상을 보였던 참여자들 가운데 현재는 문제음주 양상을 보이지 않는 집단과 현재까지 문제음주 양상이 지속되는 집단으로 나누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총 9명의 참여자들이 회고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 문제음주 지속집단에서 자기표현의 어려움이라는 성격 특성이 도출되었다. 이들은 술을 매개로 더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적 정화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두 집단 모두 음주후 부정적 결과를 경험했지만 문제음주 지속집단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런 차이가 음주양상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음주행동이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는 자신과 유사한 음주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는 선택 효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변인을 양적으로 탐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음주행동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폭음 자체보다는 취약한 성격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정서적 불편감에 대한 대처 양식으로 폭음을 할 때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문제음주, 성격, 음주기대, 음주동기, 대처 전략, 질적 연구

학번 : 2014-20233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문제음주의 정의	2
성별과 음주의 관계	3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	4
음주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	8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0
연구 I. 문제음주의 예측 요인에 대한 종합적 탐색	13
방법	16
결과	21
논의	36
연구 II. 문제음주의 변화와 지속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39
방법	40
결과	43
논의	67
종합논의	71
참고문헌	75
부 록	84
영문초록	106

표 목 차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22
표 2. 음주 및 적응성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24
표 3. 1회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26
표 4.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28
표 5.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29
표 6. 성격과 음주동기의 상관관계	30
표 7.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에 있어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효과분석	31
표 8. 남학생의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에 있어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효과분석	32
표 9.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34
표 10. 심층면담에 참여한 9명의 인적사항과 현재 음주양상	41
표 11. 문제음주 개선집단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	44
표 12. 문제음주 지속집단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	46

그림 목 차

그림 1. 남학생의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 효과	33
그림 2. 문제음주 개선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49
그림 3. 문제음주 지속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50

서 론

대학생은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음주량, 음주 빈도, 연·월간 음주율이 높다(이지현, 2010; 이지현, 제갈정, 김동학, 2010).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주소비의 위해성과 의존성을 평가하고자 개발한 측정 도구인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에도 대학생의 알코올 의존 비율(6.5%)이 성인의 알코올 의존 비율(3.5%)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지현, 2011).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은 범죄자보다 더 높은 위험음주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천성수, 손애리, 송창호, 이주열, 김선경, 2003).

과도한 음주는 사회적·대인관계적 문제에서 상해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Pearson, 2013).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관련 사고가 17~24세의 주된 사망 원인이었다(Hingson, Heeren, Zakocs, Kopstein, & Wechsler, 2002). 이외에도 폭음자들은 비폭음자들과 비교해 숙취, 후회되는 행동, 결석, 학업능률 저하, 기억상실, 언쟁, 계획에 없던 성행위, 신체적 손상, 법 위반 등 음주와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성수, 2002; Wechs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o, 1994).

그러나 문제음주를 나타낸 대학생들이 이후에 모두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유병률은 18~25세에는 16.8%로 높지만, 26세 이상에서는 6.2%, 64세 이상에서는 1.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08). 학자들은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유병률이 성인 초기에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시기적 특수성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대학생 시기는 책임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음주량과 빈도가 높은 반면, 20대 중반을 넘어서면 결혼과 취업 등으로 역할이 변화하게 되면서 책임감이 증가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감소한다는 것이다(Chen & Kandel, 1995; Zucker, Fitzgerald, & Moses, 1995). 앞서 Zucker(1987)는 대학시기에 잦은 폭음 행동을 보이지만 졸업 이후에는 사교 음주에 머무르는 ‘발달적으로 제한된 알코올 중독(developmentally limited alcoholism)’이라는 유형을 제안하기도 했다(Ham & Hope, 2003).

요약하면, 대학생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많은 술을 마시고 이러한 음주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대학생이 이후에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이어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인 초기의 시기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문제음주 대학생 중 더 큰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하위집단을 변별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과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제음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음주의 정의

아직까지 문제음주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문제음주에 대한 정의는 크게 음주량 및 빈도와 음주 관련 문제로 정의할 수 할 수 있다(Baer, 2002). 음주량의 측면에서 폭음은 한 자리에서 4잔(여성) 혹은 5잔(남성)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정의된다(Wechsler, Dowdall, Davenport, & Rimm, 1995). 한 잔은 각 주종의 표준적인 잔으로 계산하는데, 맥주는 12 온스, 와인은 4 온스가 표준적인 한 잔으로 계산된다. 폭음을 정의할 때 음주량에 더해 음주 빈도도 고려한다. Wechsler 등(2000)은 지난 2주 동안 폭음을 1~2회 하면 수

시 폭음(occasional binge drinking), 3회 이상은 상습 폭음(frequent binge drinking)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음주량과 빈도만으로 문제음주를 정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음주 관련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높은 수준의 음주 관련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기 때문이다(White & Labouvie, 1989). 이에 따라 학자들은 문제음주를 폭음과 음주 관련 부정적인 결과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Baer, Kivlahan, Blume, McKnight, & Marlatt, 2001; Ham & Hope, 2003). 본 연구에서도 문제음주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음주량과 빈도, 음주 관련 부정적 결과(이하 음주문제)를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성별과 음주의 관계

음주행동은 양적 측면에 있어서나 음주후 결과와 같은 질적 측면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다. 우선 남자는 여자보다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음주를 한다(양난미, 2010; 양모현, 류준범, 이경순, 2014; 이민규, 1993; Ham & Hope, 2003). 음주후 부정적인 경험의 내용도 성별에 따라 다른데, 남학생은 개인적인 피해(저조한 학업수행, 단기기억상실, 숙취, 의도치 않은 성관계, 자살 등)와 타인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은 개인적인 피해로만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Perkins, 2002).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음주와 관련해 연구되어 온 성격 특성 중 하나인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의 관련성은 남학생에서 더 두드러지는 반면, 신경증 성향과 음주의 관련성은 여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Ham & Hope, 2003).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

행한 국내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는 친구의 영향이 가장 잘 예측했지만 남학생의 음주빈도는 친구의 영향이, 음주량은 스트레스가 가장 잘 예측하는 등 성별에 따라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규, 1993). 따라서 음주와 관련된 변인들이 음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때 성별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

성격 특성과 음주의 관계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문제음주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성격과 문제음주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는데, 특히 감각추구 성향과 신경증 성향이 문제음주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는 신기하고 강력한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Arnett, 1994).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각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다(McCabe, 2002). 감각추구 성향은 음주량 및 음주 빈도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알코올 중독 위험이 높은 학생은 다면적인성검사(MMPI)에서 Ma 척도와 Pd 척도 점수가 상승한 프로파일을 보이는 등 높은 충동성과 감각추구 성향이 시사됐다(Camatta & Nagoshi, 1995; Valliant & Scanlan, 1996). 특히 감각추구 기질과 문제음주의 관련성은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Baer, 2002).

문제음주와 관련해 연구되어 온 또 다른 성격 특성은 신경증 성향이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 분노, 혐오,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Ham & Hope, 2003). 임상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음주동기 중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 알코올 사용 장애로 발전할 위험성이 가장 높았으며, 재발 사건의 33%~67.5%가 부정적 정서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채숙희, 2006; Cooper, Russell, Skinner, Frone, & Mudar, 199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경증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평균 수준의 음주량을 보이더라도 음주문제 행동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uiz, Pincus, & Dickinson, 2003; Vollrath & Torgersen, 2002). 또한 문제음주자들은 비문제음주자들보다 낮은 자존감과 높은 사회불안 등 신경증 성향과 관련된 성격특성을 보였다(Lewis & O'Neill, 2000).

음주기대

음주기대(Alcohol expectancy)란 음주 효과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뜻한다(Brown, Goldman, Inn, & Anderson, 1980). 음주기대는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대리학습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음주행동에 기여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성격과 스트레스 등 다른 선행 요인을 매개한다(김석도, 2000).

긍정적인 음주기대는 사고 기술 향상에 대한 기대,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 성기능 향상에 대한 기대 등이 있으며, 부정적인 음주기대는 숙취, 두통, 기억 상실, 폭력성, 우울 및 죄책감 등이 있다(김석도, 2000; Ham & Hope, 2003).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음주기대가 높고, 부정적인 음주기대가 낮을수록 알코올 소비와 음주문제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서경현, 조은희, 2011; Burke & Stephens, 1999).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음주 양상과 음주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예컨대 ‘사회적인 상황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와 같은 사교적 즐거움에 대한 기대는 잦은 음주와 관련되지만 음주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었으며, 사회적 탈억제와 관련된 기대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은 높은 음주수준을 보이지만 음주문제는 보이지 않았다(Thombs, 1993; Wood, Nagoshi, & Dennis, 1992).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은 학생일수록 숙취, 다툼, 기억상실 등 폭음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Turrisi, Wiersma, & Hughes, 2000). 한편 긴장 완화에 대한 음주기대는 음주량과 빈도뿐만 아니라, 음주문제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ran, Haaga, & Chambless, 1997). 성기능 향상에 대한 음주기대는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Corbin, Bernat, Calhoun, McNair, & Seals, 2001; Lewis & O’Neill, 2000).

음주동기

술을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한다. 혹은 상대방이 권유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마시기도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음주 동기에 따라 음주량 및 빈도, 음주문제의 수준이 달라진다(신행우, 1998; Cooper, 1994; 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Cronin, 1997; McCabe, 2002; Wood et al., 1992).

Cox와 Klinger(1988, 1990)는 음주 동기에 깔려 있는 두 개의 차원, 즉 음주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의 방향성(정적 강화 대 부적 강화)과 원천(내적 대 외적)에 따라 음주동기를 네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고양동기로, 내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의 동기이다.

둘째는 사교동기로, 외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의 동기이다. 셋째는 대처동기로, 내부에서 생성된 부적 강화의 동기이며 마지막으로 동조동기는 외부에서 생성된 부적 강화의 동기이다. 고양동기는 긍정적인 기분을 증진시키기 위한 음주이며, 사교동기는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한 음주, 대처동기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한 음주, 동조동기는 사회적 비난이나 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음주로 정의된다(신행우, 1998).

음주동기에 따라 음주양상 및 음주문제로 이어지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때 대처동기는 음주량은 예측하지 않는 반면, 음주 빈도와 음주 문제를 예측한다(신행우, 1998; Wood et al., 1992). 고양동기는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예측해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며(Cooper, 1994), 대학생들의 경우 대처동기보다 고양동기가 잠재적인 알코올 남용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ty & Kaye, 1984). 사교동기는 음주량과 음주빈도는 예측하지만 음주문제는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ronin, 1997; Kassel, Jackson, & Unrod, 2000), 동조동기는 음주량 및 빈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지만 음주문제와 관련이 있다(Cooper, 1994). 정리하면 알코올의 부적 강화에 대한 동기는 음주 문제를 예측하는 반면, 알코올의 정적 강화에 대한 동기는 음주 빈도와 음주량은 예측하지만 음주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서조절 전략

위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정서적인 불편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술을 마실 경우 음주문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정서적 불편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없을 때 술로 대처하는 방식이 학습되어 굳어지면 음주문제가 더욱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들이 음주행동과 부적응적인 대처 방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채숙희, 2006; Aldao & Nolen-Hoeksema, 2010, 2012; Cooper et al., 1995; 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따라서 어떤 대처방식이 스트레스 문제음주로 연결되는 과정에 관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Folkman과 Lazarus(1980)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행하는 대처 노력을 그 기능에 따라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과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으로 나누었다.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은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환경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에는 문제 해결이나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책략이 포함되는 반면,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아와 상황의 긍정적 측면에만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대처방식이다.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반면,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채숙희, 2006).

음주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

스트레스

음주 행동이 성격, 부정적 정서, 역기능적 대처와 같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적 요인들은 생활 스트레스와 음주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술은 스트레스 시기에 자기 투약(self-medication)의 한 형태로 사용된다(Camatta & Nagoshi, 1995). 스트레스와 음주행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Conger(1956)에 의해 알코올 소비의 긴장감소 이론으로 제안되었다. 긴장감소 이론에 따르면 술은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긴장감소 이론의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이민규, 1993). 생활 스트레스 사건이 많을수록 음주문제 행동이 수준이 높아지고(이민규, 1993; 이유리, 권정혜, 1997; Camatta & Nagoshi, 1995; Carney, Armeli, Tennen, Affleck, & O'Neil, 2000; O'hare & Sherrer, 2000),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 높은 음주량을 보인다(Miranda, Meyerson, Long, Marx, & Simpson, 2002)는 연구결과는 긴장감소 이론을 지지해준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음주율 사이에는 큰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Rohsenow, 1982)도 있는데 이러한 비일관성은 스트레스와 알코올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음을 시사한다(이민규, 1993). 스트레스와 음주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대체 양식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쾌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적은 음주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Kassel et al., 2000).

친구의 영향

폭음과 같은 음주양상은 대학 재학 시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Zucker, 1987; Ham & Hope, 2003), 환경과 친구의 영향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친구의 음주 태도와 친구의 음주량이 알코올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술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rimer, Irvine, Kilmer, & Marlatt, 1997; Martin & Hoffman, 1993; Reis & Riley, 2000). 또한 지각된 음주규준이 높을수록, 즉 또래가 술을 많이 마신다고 지각할수록 음주량과 빈도가 높아졌다(류미, 이민규, 신희천, 2010; Agostinelli, Brown, & Miller, 1995; Baer, 2002). 국내 연구에서도 친구 요인이 대학생의 음주량과 빈도, 음주문제 및 음주효과 기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김서영, 2004; 이민규, 1993).

한편, 친구의 음주량과 친구의 음주태도 같은 친구요인을 단순히 환경적 특성 혹은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친구와 가깝게 지내는가 하는 것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Baer(1994)에 따르면 지각된 음주규준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 또한 폭음을 하는 학생들은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친구와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처럼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한데, ‘어떤 변인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음주동기가 음주문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김인석, 이연희, 2003), 다른 연구에서는 친구요인이 대학생의 폭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서영, 2004), 생활문제 같은 스트레스가 음주문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이민규, 1993).

선행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먼저,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로 고려하기보다는 몇몇 개의 개별변인들과 문제음주의 상관을 살폈다. 이 때문에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문제음주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일관되지 않아 연구결과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심각한 폭음 양상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모두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알코올 사용 장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21.5%가 알코올 중독으로 보고되지만(이천희, 김민석, 2009), 문제음주를 나타낸 대학생들이 성인 초기 이후에도 문제음주를 보이는 비율은 매우 적다(Ham & Hope, 2003). 이는 대학생의 폭음 양상이 시기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rnett(2000)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발달 단계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곧바로 이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기간은 높은 수준의 개인적 자유로 특징지어지는 지연된 발달 기간(prolonged development period)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시기를 책임과 의무라는 현실 세계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기간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규범을 낮게 지각한다. 또한 이들은 대학이 인생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한다(Colby, Colby, & Raymond, 2009). 대학생들의 이런 믿음이 폭음으로 이어지며, 현실 세계로 나갔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 폭음의 동기라고 Colby 등(2009)은 분석했다. 이러한 대학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음주 대학생은 발달적으로 제한된 문제음주자와 지속적 문제음주자, 즉 대학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문제음주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과 대학 졸업 이후에도 문제음주 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적 문제음주자

는 일시적 문제음주자보다 더 높은 임상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대학생의 음주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일시적 문제음주자와 지속적 문제음주자를 구별해주는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I에서는 자기보고형 설문을 통해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 등 문제음주의 세 가지 측면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문제음주 대학생 중 더 높은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하위집단을 횡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적응성을 고려하였다. 문제음주 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학업 성실성 및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횡단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조기개입이 필요한 하위집단을 선별해내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II에서는 연구 I에서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을 예측해 준 변인들이 종단적으로 문제음주의 지속성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문제음주 양상을 개선한 참여자와 지속하고 있는 참여자를 심층 면담하고, 근거이론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음주패턴의 변화와 지속 과정을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 살펴보았다.

연구 I . 대학생 문제음주의 예측 요인에 대한 종합적 탐색

연구 I의 목적은 문제음주의 세 가지 측면과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음주동기와 문제음주의 세 가지 측면은 차별적인 관계를 갖는다. 네 가지 음주동기 중 알코올의 정적 강화와 관련되는 고양동기와 사고동기는 음주량 및 음주 빈도와 관련이 높은 반면, 알코올의 부적 강화와 관련되는 대처동기와 동조동기는 음주 문제와 상관이 높다(Ham & Hope, 2003).

한편 성별에 따라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달라진다. Caspi, Moffitt, Newman과 Silva(1996)의 연구에 따르면, 세 살 때 행동통제와 충동성에서 문제를 나타냈던 남자 아동은 21살 때 음주 관련 문제를 가질 위험이 높았으나, 여자 아동에게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울과 반추 같은 부정적 정서는 여성의 음주문제를 종단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나 남성의 음주문제는 예측하지 못했다(Nolen-Hoeksama & Harrell, 2002).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충동성 및 낮은 행동통제와 관련이 높은 고양동기와 긍정적 음주기대는 남성의 음주문제를 예측하고 부정적 정서의 부적 강화와 관련되는 대처 동기는 여성의 음주문제를 예측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성격특성에 따라 음주량과 음주빈도,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이 다르다. 감각추구 성향은 음주량 및 음주빈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반면,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신행우, 1998; Camatta & Nagoshi, 1995). 이처럼 연구결과가 혼재된 것은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다른 변인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Wood 등(1992)의 연구에서는 감각추구 성향과 관련된 성격특성인 충동성과

음주문제의 상관이 남학생에게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감각추구 성향이 음주문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보다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매개를 통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음주와 관련된 또 다른 성격특성인 신경증 성향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특히 신경증과 관련이 높은 기질인 위험회피는 음주량과 빈도를 통제했을 때에도 음주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회피가 높을 경우, 술을 많이 혹은 자주 마시지 않더라도 음주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신행우, 1998).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감각추구 성향과 달리 신경증 성향은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은 대학시기를 현실로부터의 ‘타임 아웃(time out)’, 즉 성인으로서의 이행이 유예된 시기로 지각하며 이러한 시기적 특수성이 폭음을 허용하는 요소로 작용한다(Colby, Colby, & Raymond, 2009). 즉, 문제음주 양상을 보이는 대학생들이 모두 임상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여, 보다 큰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하위집단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적응성은 학업 성실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여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높은 부정 정서 수준은 음주문제 뿐만 아니라 섭식 장애,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Aldao & Nolen-Hoeksema, 2010, 2012; Karyadi & King, 2011; 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정서

를 완화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대처 동기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중 하나인 정서 중심적 대처 양식, 높은 부정 정서 수준을 나타내는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적응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연구 I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별에 따라 음주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를 것이다.

- 1-1.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의 영향이 클수록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 1-2. 남학생은 고양동기, 긍정적 음주 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문제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 1-3. 여학생은 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음주문제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성격에 따라 음주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를 것이다.

- 2-1. 감각추구 성향은 고양동기와 정적 상관, 신경증 성향은 대처동기와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 2-2. 감각추구 성향은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를 통해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경증 성향은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음주동기, 성격 특성, 대처 양식에 따라 적응성이 달라질 것이다.

- 3-1. 술을 통해 부정정서를 완화하려는 대처 동기가 높을수록 적응성이 낮을 것이다.
- 3-2.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적응성이 낮을 것이다.
- 3-3. 정서 중심적 대처가 높을수록 적응성이 낮고, 문제 중심적 대처가 높을수록 적응성이 높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한 대학교 학부생 3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 모집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 참여 시스템(R-point system)과 학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26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선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08세(표준편차=2.40, 범위=17~32세)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158명, 여자가 110명이었다.

측정도구

음주 패턴. 1회 음주량과 음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행우(1998)가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1회 음주량 문항은 술을 한 번 마실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마시는지를 맥주를 기준으로 하여 묻고, 0점(“전혀 안 마심”)에서 11점(“5000cc 이상”)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주로 마시는 술이 소주인 경우 그 양을 직접 적도록 한 후,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계산해 맥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같은 단위가 되도록 연구자가 변환하였다. 음주빈도 문항은 0점(“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에서 6점(“거의 매일”)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음주 문제 척도. 일반 음주자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술을 마신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장·단기적 문제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행우(199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이며,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측정하는 6문항, 행동상의 문제

를 측정하는 10문항,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을 측정하는 7문항(행동상의 문제와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 3문항은 중복됨)으로 구성된다. 1점(“전혀 없다”)에서 5점(“매우 자주”)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신행우(1998)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이 .88, 행동상의 문제는 .84,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은 .7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각각 .87, .88, .85로 나타났다.

과거 문제 음주. 과거 문제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 음주량과 음주 빈도, 음주후 부정적 결과가 지나친 수준이었는지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각 예-아니오의 형식으로 응답한다.

친구의 영향. 참여자가 지각하고 있는 친구의 1회 음주량과 음주 빈도, 친구의 음주 태도, 친구의 음주 강요 문항을 통해 친구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친구의 1회 음주량 및 음주 빈도는 위의 1회 음주량과 음주 빈도를 묻는 문항과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친구의 음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1점(“매우 엄격함”)에서 5점(“매우 허용적”)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친구의 음주 강요 수준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친구의 영향은 모든 문항들의 합으로 계산되었다.

음주 동기 척도. 음주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신행우(199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이며, 고양 동기를 측정하는 4문항, 대처 동기를 측정하는 4문항, 동조 동기를 측정하는 4문항, 사교 동기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양동기는 긍정적인 기분을 증진시키기 위한 음주이며, 사교동기는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한 음주, 대처동기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한 음주, 동조동기는 사회적 비난이나 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음주로 정의된

다(신행우, 1998). 1점(“전혀 마시지 않는다”)에서 5점까지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신행우(1998)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고양 동기가 .85, 대처 동기가 .93, 동조 동기가 .81, 사고 동기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0, .90, .79, .89이었다.

음주 기대 척도(Alcohol Expectancy Scale, AES). 음주 효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Leigh와 Stacy(1993)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김석도(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4 문항이며, 알코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19문항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에서 5점(“매우 그럴 것이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김석도(2000)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은 전체척도에서 .89, 긍정적 음주기대의 하위 척도에서 .93, 부정적 음주기대의 하위척도에서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2, .92, .85로 나타났다.

감각추구 성향 척도. 감각추구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Arnett(1994)이 개발하고 오미경(1997)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아주 그렇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오미경(1997)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은 .8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83이었다.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신경증 척도. 신경증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현수(1997)가 번안한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II부 중 신경증 척도를 사용하였다.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아니오의 형식으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83이었다.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의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 대처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에 기초하여 이은희(2004)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 9문항과 정서 중심적 대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5점(“아주 많이 사용 한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이은희(2004)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은 문제 중심적 대처가 .79, 정서 중심적 대처가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2, .77로 나타났다.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전경구, 김교헌과 이준석(2001)이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경제문제 7문항, 이성과의 관계 6문항, 교수와의 관계 6문항, 가족과의 관계 6문항, 장래 문제 8문항, 가치관 문제 5문항, 학업 문제 7문항, 친구와의 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빈도(0~3점의 Likert 척도)와 중요도(0~3점의 Likert 척도)의 곱으로 계산된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은 각 영역별로 .75~.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은 .97이었다.

대인관계 만족도 검사(Tes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은혁기(2000)가 기존의 검사지들을 참고하여 만든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일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 5문항,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7문항,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7문항,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은혁기(2000)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on과 Griffin(1985)가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7로 나타났다.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 척도.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한덕웅과 표승연(2002)이 사용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립되는 정서를 양 끝에 두는 7점 Likert 형식의 척도이다. 한덕웅과 표승연(2002)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은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92로 나타났다.

학업 성실성. 학업 성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음주로 인한 결석 빈도와 음주로 인한 지각 빈도, 지난 학기 평균 학점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음주로 인한 결석 및 지각 빈도 문항은 1점(“전혀 없다”)에서 5점(“거의 매일”)의 Likert 형식으로, 학점은 1점(“A”)에서 5점(“F”)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통계적 분석

268명의 자료에 대해 측정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고, 다중 회귀 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성차

각 변인들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음주문제($t=.19$, ns)는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1회 음주량($t=3.97$, $p<.01$)과 음주빈도($t=2.31$, $p<.05$)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음주동기와 음주기대, 대처방식, 스트레스수준, 적응성은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격 중 신경증 성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6$, $p<.05$).

음주 및 적응성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1회 음주량과 음주빈도, 음주 관련 문제, 친구의 영향, 음주동기, 음주기대, 성격과 대처방식, 스트레스 수준, 적응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1회 음주량은 다양한 음주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그 중 음주빈도($r=.55$, $p<.01$), 음주 문제($r=.24$, $p<.01$), 친구의 영향($r=.58$, $p<.01$), 교양동기($r=.33$, $p<.01$), 사교동기($r=.41$, $p<.01$), 대처동기($r=.23$, $p<.01$), 긍정적 음주기대($r=.41$, $p<.01$), 부정적 음주기대($r=.23$, $p<.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스트레스($r=-.15$, $p<.05$) 및 학업성실성($r=-.17$, $p<.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1회 음주량은 동조동기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07$, ns).

음주빈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음주빈도는 음주문제($r=.31$, $p<.01$), 친구의 영향($r=.45$, $p<.01$), 교양동기($r=.54$, $p<.01$), 사교동기($r=.55$, $p<.01$), 대처동기($r=.36$, $p<.01$), 동조동기($r=.27$,

표 1. 각 변인들의 남녀 평균 및 표준편차(N=268)

	전체	남(n=158)	여(n=110)	t
음주양상				
1회 음주량	4.99(2.55)	5.49(2.44)	4.27(2.53)	3.97**
음주빈도	3.22(1.23)	3.37(1.22)	3.02(1.21)	2.31*
음주문제	8.63(10.09)	8.53(9.94)	8.76(10.34)	.19
친구의 영향	15.75(3.42)	16.15(3.28)	15.17(3.55)	2.32*
음주동기				
고양동기	10.08(3.44)	9.89(3.36)	10.35(3.56)	1.06
사교동기	13.26(3.30)	13.35(3.20)	13.12(3.45)	0.58
대처동기	9.26(3.86)	9.03(3.80)	9.60(3.95)	1.20
동조동기	9.12(3.33)	9.03(3.47)	9.25(3.14)	0.54
음주기대				
긍정적기대	68.95(14.85)	70.04(14.85)	67.37(14.76)	1.45
부정적기대	46.83(11.29)	47.89(11.60)	45.32(10.71)	1.84
성격				
감각추구성향	51.74(9.11)	52.41(9.13)	50.79(9.04)	1.43
신경증성향	4.56(3.32)	4.15(3.19)	5.13(3.43)	2.36*
대처방식				
문제중심	29.77(5.72)	29.77(5.56)	29.76(5.97)	0.01
정서중심	18.30(5.06)	18.37(5.10)	18.20(5.01)	0.27
스트레스	67.65(44.32)	62.99(42.08)	74.35(46.74)	2.08
적응성	180.63(22.40)	178.72(21.47)	183.36(23.52)	1.67
학업	13.56(1.34)	13.54(1.40)	13.59(1.24)	0.32
대인관계	97.40(10.16)	96.92(10.06)	98.08(10.32)	0.92
주관적안녕감	69.67(15.13)	68.26(14.87)	71.69(15.33)	1.84

* $p < .05$, ** $p < .01$

$p < .01$), 긍정적 음주기대($r = .41, p < .01$), 부정적 음주기대($r = .16, p < .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음주빈도는 정서 중심 대처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정서 중심 대처가 높을수록 음주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r = .13, p < .05$). 음주빈도와 학업성실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28, p < .01$).

음주문제는 친구의 영향($r = .16, p < .01$), 고양동기($r = .39, p < .01$), 사교동기($r = .30, p < .01$), 대처동기($r = .38, p < .01$), 동조동기($r = .36, p < .01$), 긍정적 음주기대($r = .26, p < .01$), 부정적 음주기대($r = .34,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문제는 감각추구 성향($r = .26, p < .01$), 정서 중심 대처($r = .27, p < .01$), 스트레스($r = .26, p < .01$)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각추구 성향, 정서 중심 대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문제도 높다는 것이 시사됐다.

한편 적응성은 1회 음주량($r = .07, ns$), 음주빈도($r = .07, ns$), 음주문제($r = -.04, ns$)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성은 고양동기($r = .12, p < .05$), 사교동기($r = .21, p < .01$), 문제 중심 대처($r = .39, p < .01$)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신경증 성향($r = -.44, p < .01$), 정서 중심 대처($r = -.15, p < .05$), 스트레스($r = -.38, p < .01$)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학업성실성과 음주 관련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성실성은 1회 음주량($r = -.17, p < .01$), 음주빈도($r = -.28, p < .01$), 음주문제($r = -.41, p < .01$), 친구의 영향($r = -.14, p < .05$), 고양동기($r = -.15, p < .05$), 사교동기($r = -.14, p < .05$), 대처동기($r = -.20, p < .01$), 동조동기($r = -.15, p < .05$), 긍정적 음주기대($r = -.21, p < .01$), 부정적 음주기대($r = -.21, p < .01$), 감각추구 성향($r = -.12, p < .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2. 음주 및 적응성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N=26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음주량																		
2.음주빈도	.55**																	
3.음주문제	.24**	.31**																
4.친구의영향	.58**	.45**	.16**															
5.고양동기	.33**	.54**	.39**	.20**														
6.사교동기	.41**	.55**	.30**	.35**	.55**													
7.대처동기	.23**	.36**	.38**	.12*	.53**	.33**												
8.동조동기	.07	.27**	.36**	.16**	.30**	.50**	.20**											
9.PE	.41**	.41**	.26**	.24**	.43**	.53**	.38**	.30**										
10.NE	.23**	.16**	.34**	.20**	.12	.12*	.25**	.24**	.52**									
11.NS	.11	.09	.26**	.14*	.23**	.26**	.08	.24**	.22**	.27**								
12.NR	-.05	.00	.11	-.01	.03	.00	.18**	.14*	.05	.23**	.07							
13.문제중심	.00	-.02	-.06	.07	.08	.11	-.03	.00	.06	.08	.15*	-.12*						
14.정서중심	.07	.13*	.17**	.09	.14*	.09	.19**	.26**	.19**	.21**	.20**	.25**	.04					
15.스트레스	-.15*	-.06	.26**	-.06	.06	.00	.15*	.22**	-.01	.11	.14*	.36**	-.01	.29**				
16.학업	-.17**	-.28**	-.41**	-.14*	-.15*	-.14*	-.20**	-.15*	-.21**	-.21**	-.12*	-.08	.28**	-.09	-.04			
17.대인관계	.12	.08	-.06	.12	.12	.26**	-.03	.00	.26**	-.02	.08	-.27**	.38**	-.13*	-.21**	.19**		
18.안녕감	.04	.07	.01	.06	.11	.14	-.04	.08	.14*	-.04	.03	-.47**	.29**	-.12	-.42**	.06	.52**	
19.적응성	.07	.07	-.04	.09	.12*	.21**	-.05	.04	.20**	-.05	.05	-.44**	.39**	-.15*	-.38**	.19**	.82**	.92**

주. 음주량=1회음주량, 음주빈도=음주빈도문항, 음주문제=음주문제척도, 친구의영향=친구의 1회음주량+친구의 음주빈도+친구의 음주태도+친구의 음주 강요, 고양동기=음주동기척도 중 고양동기, 사교동기=음주동기척도 중 사교동기, 대처동기=음주동기척도 중 대처동기, 동조동기=음주동기척도 중 동조동기, PE=음주기대척도 중 긍정적 음주기대, NE=음주기대척도 중 부정적 음주기대, NS=감각추구 성향척도, NR=아이젠크 성격검사 중 신경증 척도, 문제중심=대처방식척도 중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대처방식 척도 중 정서중심적 대처, 스트레스=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학업=음주로 인한 결석 빈도 및 지각 빈도+지난 학기 평균 학점, 대인관계=대인관계만족도 검사, 안녕감=삶의 만족도 척도+정서적 주관적 안녕감 척도, 적응성=학업+대인관계+안녕감

* $p < .05$, ** $p < .01$

성별에 따른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탐색

성별에 따라 음주양상의 세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하기 위하여 표본을 남녀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친구의 영향과 음주동기, 음주기대, 성격, 대처 양식,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고, 1회 음주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위의 독립 변인들은 1회 음주량의 총 변량 중 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 145)=10.33$, $R^2=.46$, $p<.001$). 독립 변인 중 친구의 영향($\beta=.50$, $p<.01$)과 동조동기($\beta=-.17$, $p<.05$), 긍정적 기대($\beta=.2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1회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친구의 영향($\beta=.50$, $p<.01$)이 가장 컸다.

여학생의 경우, 위의 독립 변인들이 1회 음주량의 총 변량 중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 97)=8.04$, $R^2=.50$, $p<.001$). 독립 변인 중 친구의 영향($\beta=.44$, $p<.01$)과 사교 동기($\beta=.30$, $p<.05$), 문제 중심적 대처($\beta=-.16$,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1회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영향($\beta=.50$, $p<.01$)이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의 영향이 높을수록 1회 음주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설 1-1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친구의 영향과 음주동기, 음주기대, 성격, 대처 양식, 스트레스 등 독립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고, 음주빈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진행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1회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	SE	β	t	R	R ²	F
남자							
친구의 영향	.37	.05	.50	6.81**	.68	.46	10.33***
음주동기							
고양동기	.09	.06	.13	1.51			
사교동기	.08	.07	.10	1.10			
대처동기	-.01	.05	-.01	-.14			
동조동기	-.12	.05	-.17	-2.19*			
음주기대							
긍정적기대	.03	.01	.20	2.32*			
부정적기대	.01	.02	.06	0.68			
성격							
감각추구 성향	-.02	.02	-.06	-.93			
신경증 성향	-.03	.05	-.04	-.61			
대처방식							
문제중심	-.02	.03	-.04	-.56			
정서중심	.01	.03	.02	.33			
스트레스	.00	.00	-.08	-1.16			
여자							
친구의 영향	.32	.05	.44	5.79**	.71	.50	8.04***
음주동기							
고양동기	.10	.07	.15	1.42			
사교동기	.22	.09	.30	2.47*			
대처동기	.06	.06	.09	.96			
동조동기	-.13	.07	-.16	-1.86			
음주기대							
긍정적기대	.01	.02	.04	.39			
부정적기대	.02	.02	.10	1.10			
성격							
감각추구 성향	.01	.02	.04	.56			
신경증 성향	.00	.06	.00	.03			
대처방식							
문제중심	-.07	.03	-.16	-2.01*			
정서중심	.00	.04	.00	-.05			
스트레스	-.01	.00	-.09	-1.09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독립 변인들은 남학생의 음주빈도 총 변량 중 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 145)=14.88, R^2=.55, p<.001$). 독립 변인 중 친구의 영향($\beta=.28, p<.01$)과 고양 동기($\beta=.35, p<.01$), 사고 동기($\beta=.31,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고양 동기($\beta=.35, p<.01$)가 가장 컸다.

여학생의 음주빈도에 대한 위의 독립 변인들의 설명량은 46%였다. ($F(12, 97)=6.87, R^2=.46, p<.001$). 독립 변인 중 친구의 영향($\beta=.21, p<.05$)과 고양 동기($\beta=.28, p<.05$), 문제 중심적 대처($\beta=-.16,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친구의 영향($\beta=.21, p<.05$)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의 영향이 높을수록 음주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설 1-1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고, 음주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남녀로 나누어 진행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위의 독립 변인들은 남학생의 음주문제의 총 변량 중 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 145)=8.61, R^2=.42, p<.001$). 독립 변인 중 친구의 영향($\beta=.17, p<.05$)과 고양 동기($\beta=.28, p<.01$), 부정적 음주기대($\beta=.22, p<.05$), 문제 중심적 대처($\beta=-.2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측력은 고양 동기($\beta=.28, p<.01$)가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가설 1-2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음주문제에 관해서는 위의 독립 변인들이 총 변량 중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 97)=4.66, R^2=.37, p<.001$).

표 4.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	SE	β	t	R	R ²	F
남자							
친구의 영향	.10	.02	.28	4.23**	.74	.55	14.88***
음주동기							
고양동기	.13	.03	.35	4.61**			
사교동기	.12	.03	.31	3.75**			
대처동기	.02	.02	.08	1.07			
동조동기	-.03	.02	-.07	-1.03			
음주기대							
긍정적기대	.00	.01	-.03	-.41			
부정적기대	.01	.01	.06	.83			
성격							
감각추구 성향	-.01	.01	-.11	-1.67			
신경증 성향	.00	.02	-.01	-.14			
대처방식							
문제중심	.00	.01	-.02	-.28			
정서중심	.02	.02	.10	1.56			
스트레스	.00	.00	-.03	-.55			
여자							
친구의 영향	.07	.03	.21	2.63*	.68	.46	6.87***
음주동기							
고양동기	.09	.04	.28	2.58*			
사교동기	.06	.04	.16	1.30			
대처동기	.01	.03	.04	.47			
동조동기	.05	.04	.13	1.37			
음주기대							
긍정적기대	.02	.01	.18	1.62			
부정적기대	-.01	.01	-.08	-.85			
성격							
감각추구 성향	-.02	.01	-.12	-1.49			
신경증 성향	.01	.03	.04	.49			
대처방식							
문제중심	-.03	.02	-.16	-2.00*			
정서중심	-.01	.02	-.04	-.48			
스트레스	.00	.00	-.11	-1.28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	SE	β	t	R	R ²	F
남자							
친구의 영향	.52	.23	.17	2.26*	.65	.42	8.61***
음주동기							
고양동기	.83	.26	.28	3.18**			
사교동기	.18	.29	.06	.61			
대처동기	.31	.21	.12	1.46			
동조동기	.41	.23	.14	1.81			
음주기대							
긍정적기대	-.11	.06	-.16	-1.79			
부정적기대	.19	.07	.22	2.61*			
성격							
감각추구 성향	.07	.08	.06	.87			
신경증 성향	-.02	.22	-.01	-.10			
대처방식							
문제중심	-.36	.12	-.20	-3.06**			
정서중심	-.09	.15	-.05	-.65			
스트레스	.04	.02	.15	2.13			
여자							
친구의 영향	-.29	.25	-.10	-1.15	.61	.37	4.66***
음주동기							
고양동기	.31	.33	.11	.92			
사교동기	.10	.41	.03	.25			
대처동기	.69	.27	.26	2.58*			
동조동기	.41	.33	.12	1.25			
음주기대							
긍정적기대	-.04	.09	-.06	-.50			
부정적기대	.28	.10	.30	2.78**			
성격							
감각추구 성향	.10	.10	.09	.97			
신경증 성향	-.50	.28	-.16	-1.75			
대처방식							
문제중심	-.01	.15	.00	-.04			
정서중심	.13	.19	.06	.69			
스트레스	.04	.02	.19	1.98			

* $p < .05$, ** $p < .01$, *** $p < .001$

독립 변인 중 대처동기($\beta=.26, p<.05$)과 부정적 음주기대($\beta=.30,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1-3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성격과 음주동기의 상관관계 및 성격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효과 검증

성격 특성과 음주동기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감각추구 성향은 고양동기($r=.23,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대처동기($r=.08, ns$)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신경증 성향은 대처동기($r=.18,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고양동기($r=.03, ns$)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1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표 6. 성격과 음주동기의 상관관계

	1	2	3
1. 감각추구 성향			
2. 신경증 성향	.07		
3. 고양동기	.23**	.03	
4. 대처동기	.08	.18**	.53**

** $p<.01$

성격 특성과 음주문제의 관계에 있어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표 7),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감각 추구가 매개변인인 음주량 및 음주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beta=.12,$

$p < .05$), 2단계에서 감각추구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beta = .26, p < .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음주량 및 음주빈도는 감각 추구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도 음주 문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7, p < .01$). 이 때 음주문제에 대한 감각 추구의 영향력이 2단계($\beta = .26$)보다 3단계($\beta = .23$)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각추구와 음주문제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가 부분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1.84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에 있어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효과분석

		β	t	R^2	F
1단계					
감각추구 성향	→ 음주량 및 음주빈도	.12	2.03*	.02	4.11*
2단계					
감각추구 성향	→ 음주 문제	.26	4.41**	.07	19.44**
3단계					
감각추구 성향	→ 음주 문제	.23	3.97**	.14	21.26**
음주량 및 음주빈도	→	.27	4.65**		

주. 음주량 및 음주빈도는 1회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더한 것임.

* $p < .05$, ** $p < .01$

전체 표본에서는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라 음주량 및 음주빈도가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성별을 나누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 음주량 및 음주빈도가 감각추구 성향과 음

주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8),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감각추구 성향이 매개변인인 음주량 및 음주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beta=.18, p<.05$), 2단계에서 감각추구 성향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beta=.28, p<.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음주량 및 음주빈도는 감각추구 성향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도 음주 문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 p<.01$). 이 때 음주문제에 대한 감각추구 성향의 영향력이 2단계($\beta=.28$)보다 3단계($\beta=.22$)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가 부분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2.03으로 유의도 .05수준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2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8. 남학생의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문제에 있어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효과분석

				β	t	R^2	F
1단계	감각추구 성향	→	양적 음주	.18	2.23*	.03	4.95*
2단계	감각추구 성향	→	음주 문제	.28	3.60**	.08	12.98**
3단계	감각추구 성향	→	음주 문제	.22	2.96*	.19	18.46**
	음주량 및 음주빈도	→		.35	4.71**		

주. 음주량 및 음주빈도는 1회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더한 것이다.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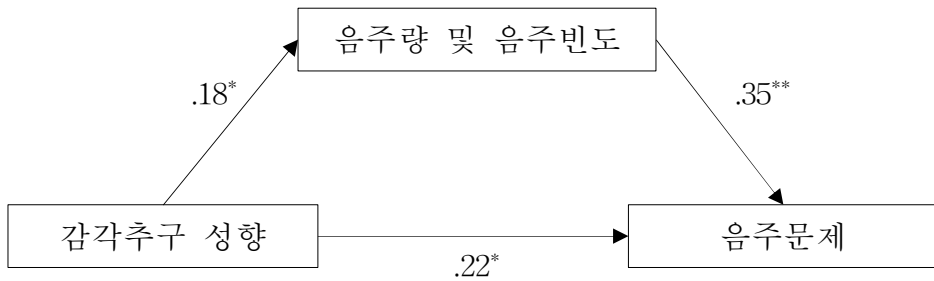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의 감각추구와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효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 $p < .05$ ** $p < .01$)

다음으로 신경증이 음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신경증은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ns*). 즉, 가설 2-2 중 신경증과 음주문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지지되지 않았다.

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 탐색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문제음주의 3가지 측면, 친구의 영향, 음주동기, 음주기대, 성격특성, 대처방식, 스트레스를 독립 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고, 적응성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적응성은 학업 성실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하였다. 문제음주양상을 보이지 않는 참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 중 한 가지 영역에서라도 문제음주양상을 보이는 참여자 174명의 자료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선별대상은 음주량이 폭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음주빈도가 주 1~2회 이상, 혹은 음주문제 점수가 전체 표본 중 상위 30% 이내인 참여자였다.

분석결과 독립 변인들은 적응성의 총 변량 중 47%를 설명하는

표 9.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N=174)

	B	SE	β	<i>t</i>	<i>R</i>	<i>R</i> ²	<i>F</i>
성별	-7.17	2.85	-.16	-2.51**	.69	.47	8.75***
문제음주							
1회 음주량	.47	.75	.05	.63			
음주빈도	.37	1.57	.02	.24			
음주문제	-.01	.15	-.01	-.10			
친구의 영향	-.27	.56	-.04	-.48			
음주동기							
고양동기	-.13	.54	-.02	-.24			
사교동기	.24	.61	.03	.39			
대처동기	-.17	.39	-.03	-.44			
동조동기	1.26	.48	.19	2.60**			
음주기대							
긍정적기대	.25	.14	.14	1.83			
부정적기대	-.02	.17	-.01	-.10			
성격							
감각추구 성향	.07	.17	.03	.40			
신경증 성향	-1.89	.44	-.29	-4.33***			
대처방식							
문제중심	1.60	.24	.42	6.68***			
정서중심	-.45	.29	-.10	-1.56			
스트레스	-.14	.04	-.27	-3.81***			

주. 적응성은 학업적응과 대인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의 점수를 더한 것임.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F(16, 157)=8.75, R^2=.47, p<.001$). 문제음주의 3가지 측면, 즉 1회 음주량($\beta=.05, ns$), 음주빈도($\beta=.02, ns$), 음주문제($\beta=-.01, ns$)는 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지 못했다. 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은 성별($\beta=-.16, p<.05$), 동조동기($\beta=.19, p<.05$)와 신경증($\beta=-.29, p<.001$), 문제 중심적 대처($\beta=.42, p<.001$), 스트레스($\beta=-.27, p<.001$)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고, 동조동기와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이 높을수록, 신경증 성향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설 3-2를 지지해주며, 가설 3-3는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적응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연구 I의 목적은 성별과 성격에 따라 문제음주의 세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다. 더불어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문제음주 양상을 보이는 대학생들 중에서 보다 더 큰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하위 집단을 선별해 내고자 하였다.

연구 I의 결과 성별에 따라 음주패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음주량과 음주빈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음주문제는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1회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유의미하게 낮지만, 음주문제를 경험하는 빈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주문제 역시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 연구(이민규, 1993)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여학생의 음주량과 빈도가 남학생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문제는 차이가 없는 이유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알코올의 흡수는 체중과 체지방지수의 영향을 받는데,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고 체지방지수는 높아 같은 양의 술을 먹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진다(Perkins, 2002). 이로 인해 여학생들이 적은 술을 먹더라도 음주후 부정적인 경험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인다.

1회 음주량과 음주 빈도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동조동기가 높을수록 1회 음주량이 적었다는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그 예측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학생에서는 동조동기가 1회 음주량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동조동기와 음주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신행우(1998)의 연구에서는 동조동기와 음주량이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난미(2010)의 연구에서는 정상음주집단

에 비해 심각한 폭음 집단이 더 높은 동조동기를 갖고 있고, 심각한 폭음 집단의 음주문제를 동조동기가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혼재된 결과는 다른 변인의 혼입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동조동기는 사회적 장면에서의 부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음주 동기이므로 부적 정서가 선행할 때 음주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Stewart, Zvolensky와 Eifert(2001)의 연구 결과, 사회적 장면에서 불안민감성이 높은 남학생에 한해서만 동조동기와 음주량 및 빈도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와는 다른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참여자들이 사회적 장면에서 큰 부적 정서를 느끼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동조동기는 자발적 음주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폭음보다는 오히려 적은 음주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달랐는데, 먼저 남학생은 친구의 영향과 고양동기 및 사교동기, 부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여학생은 대처동기와 부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특이점은 부정적 음주기대는 음주량과 빈도, 음주문제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달리 부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문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음주경험이 쌓이면서 음주문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부정적 음주기대가 보다 정교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석도, 2000; Dun & Goldman, 1996). 다른 가능한 해석은 음주자가 음주후 부정적 결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Ham & Hope, 2003). 실제로 술의 부정적인 효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를 일상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음주자들이 술의 부정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

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성격에 따라 음주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 2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감각추구 성향은 고양동기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으며, 신경증 성향은 대처동기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이는 감각추구 성향은 알코올의 정적 강화와 관련된 동기와 관련되며, 신경증 성향은 알코올의 부적 강화와 관련된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감각추구 성향은 양적 음주의 매개를 거쳐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남학생에게서만 지지되었는데, 이는 감각추구 성향과 음주의 상관관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진다는 선행 연구(Baer,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적응성과 관련하여, 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적응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고, 신경증이 높을수록 적응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적응성과 대처 양식의 관계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가 높을수록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 중심적 대처는 적응성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3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한편 문제음주의 3가지 측면 모두 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의 음주양상이 반드시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폭음양상 자체보다는 신경증 성향이 높고, 문제 중심적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정서적 불편감에 대처하기 위해 술을 마실 때 보다 임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II. 대학생 음주양상의 변화와 지속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연구 II의 목적은 연구 I에서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이 종단적으로 문제음주의 지속을 예측해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의 유병률이 18~25세에는 16.8%로 높지만, 26세 이상에서는 6.2%로 급격히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SAMHSA, 2008), 성인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음주 양상은 높은 자유와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감이 부여되는 시기적 특수성이 반영된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발달적으로 제한된 문제음주 양상을 보이는 유형과 별개로 문제음주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을 선별하여 조기개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 문제음주 행동을 보인 대학생 중 현재는 문제음주 행동을 보이지 않는 집단과 현재에도 문제음주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집단을 심층 면담하여 참여자들의 회고적 보고를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양적 연구는 대학생 문제음주와 관련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복잡한 인간의 행동들을 다각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문제음주 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사고와 정서가 음주행동 개선 및 지속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적 경험을 전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 II에서는 근거 이론(ground theory)에 기반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문제음주 개선집단과 지속집단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문제음주 행동

에 이르는가, 어떤 사고와 정서 및 외적 요인이 이러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 음주행동을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하는가, 이러한 결심을 약화 혹은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를 탐색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문제음주 개선 참여자, 즉 과거에는 문제음주 행동을 보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연구 1의 설문 및 추가 참여자 모집을 위한 스크리닝 설문에서 과거에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 문제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답한 학생 중, 최근 3개월 동안 음주량과 빈도가 수시 폭음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문제 점수는 과거문제음주 패턴을 보인 학생들과 비교해 하위 30% 이내이거나 30점 이하인 학생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수시 폭음은 1회 음주량이 5잔(여학생은 4잔) 이상으로 정의되는 폭음 행동을 지난 2주 동안 1~2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한다. 총 5명을 면담하였고 그 중 현재 음주량과 빈도가 기준에 맞지 않은 참여자 1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문제음주 지속 참여자, 즉 과거에 문제음주 행동을 보였고, 현재도 문제음주 양상을 지속하는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선정하였다. 문제음주 개선집단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 문제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답한 학생 중, 최근 3개월 동안 음주량과 빈도가 상습 폭음에 해당하며, 음주문제 점수는 과거문제음주 패턴을 보인 학생들과 비교해 상위 30% 이상이거나 45점 이상인 학생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상습 폭음은 지난 2주 동안 3회 이상 폭음을 한 것으로 정의된다. 6명을 면담하였으나

그 중 1명은 최근의 상습 폭음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답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3세로(표준편차=1.12)로 범위는 21~24세였으며, 이 중 남자가 5명, 여자가 4명이었다(표 10).

표 10. 심층면담에 참여한 9명의 인적사항과 현재 음주양상

		성별	나이 (만)	학 년	현재 1회 음주량	현재 음주빈도
문제 음주 개선 집단	참여자 1	남	23	4	맥주 1~2잔	한 달에 1회
	참여자 2	남	22	3	금주	금주
	참여자 3	여	24	4	맥주 1잔	한 달에 1회
	참여자 4	여	21	3	맥주 1~2잔	2~3주에 1회
문제 음주 지속 집단	참여자 5	남	24	3	소주 1~2병	주 2~3회
	참여자 6	남	22	3	소주 3병	주 5회
	참여자 7	여	23	4	소주 1병	주 3회
	참여자 8	남	24	4	소주 3병	주 2회
	참여자 9	여	24	5	소주 1.5병	주 3~4회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면담을 위한 질문지 작성

대학생의 음주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연구 I의 결과를 참고하여 문제음주 변화과정과 지속과정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을 작성하였다. 주요 질문은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게 된 상황, 술을 마시는 이유, 음주 후 경험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

술을 줄여야겠다고 결심한 계기, 금주를 할 때 어려운 점이나 도움이 되는 점 등이었다(부록 15).

심층면담을 통한 근거자료 수집

면담은 8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60분씩 서울 소재 대학의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시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면담과정을 녹음하여 축어록을 전사하였고, 그 내용을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면담 시에는 음주경험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사실적 근거들을 함께 제시하도록 이끌었다.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절차를 따랐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녹음자료를 녹취하여 근거이론의 코딩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녹취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해 읽으면서 의미 있는 개념을 명명하는 개방코딩을 하였고, 개념들을 비슷한 범주끼리 묶어서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중간 단계의 범주를 하위범주로, 비슷한 하위범주끼리 묶어서 다시 범주로 추상화하였다. 이후 패러다임 모형을 찾는 축코딩을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결 과

자료의 범주화 결과

본 연구 자료에 대한 개방코딩과정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완전축어록으로 전사하고, 이를 줄 단위로 분석하면서 개념을 명명하였다. 문제음주 개선집단의 경우, 최종적으로 34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범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11). 문제음주 지속집단은 최종적으로 32개의 개념과 19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12).

근거 이론에서는 각각의 범주들을 재조합하여 범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6개의 범주로 분류되는데 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중재적 조건, 결과가 그것이다. 우선 현상은 연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인과적 조건은 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며,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는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취하는 행동들이며,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뜻한다. 결과는 위와 같은 전략들을 활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물이다.

이에 근거하여 개념과 범주를 엮는 축코딩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음주 개선집단과 문제음주 지속집단의 내적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자 했다. 두 집단 모두 대학 입학 후 잦은 술자리라는 인과적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의 긍정적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경험하는 것 또한 두 집단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었다. 맥락적 조건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는데, 문제음주 개선집단에서는 제약에 대한 보상과 압박감이 도출되었고, 문제음주 지속집단에서는 애주가와 친해짐과 존재감 욕구, 자기표현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표 11. 문제음주 개선집단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

개념	하위범주	범주
학과모임, 동아리 모임이 많음 미팅이나 부킹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많아짐	잡은 술자리
여럿이 모였을 때 마땅히 할 게 없음	선택의 제한	
그동안 공부하면서 억눌러 왔던 것을 해소하고 싶음 금지됐던 것을 더 하고 싶음	과거에 대한 보상	계약에 대한 보상
군대 가기 전에 실컷 놀고 싶음	미래에 대한 보상	
분위기를 유지시켜야하는 부담감 선배들이 주는 술을 거부하기 어 려움 술자리에 빠지면 안 좋다는 얘기 들음	술을 거부하기 어려움	압박감
서로 말이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짐	분위기가 좋아짐	술의 긍정적 효과 경험
기분이 좋아짐	기분 고양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배우는 자리가 됨	깊은 대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됨 기억을 잃음	인지 및 행동기능 저하	술의 부정적 효과 경험

물건을 잃어버림	금전적 손해	
타인과 다툼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	
함께 사는 사람에게 피해를 줌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	학업 수행에 지장	
구토	신체적 고통	
반복되는 술자리에 회의를 느낌	술자리에 회의를 느낌	음주 동기 약화
부정적 경험을 돌아보며 후회	음주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술이 몸에 맞지 않음	건강상의 문제	
술자리에 안 가게 됨 술 권유를 거절하게 됨	거절효능감을 갖게 됨	금주에 도움을 주는 내·외부적 요소 발견
금주하는 즐거움	금주를 실행하는 내적 보람	
다른 사람들도 술자리에 나오지 않음 생활이 바빠짐	외부 여건의 변화	
금주 결심에 대한 친구들의 응원	외적 지지	
건강 회복 돈이 절약됨 학점 오름 개인시간이 늘어남	절주로 인한 긍정적 변화	술을 줄인 후 삶의 변화
단조로운 삶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	술을 줄인 후 아쉬움	

표 12. 문제음주 지속집단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

개념	하위범주	범주
학과 모임, 동아리 모임이 많음 미팅	술자리가 많아짐	잡은 술자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심	술이 당연해짐	
술을 즐기는 친구들과 가까워짐	술과 친화적인 친구 선택	애주가와 친해짐
주량에 대한 자부심과 경쟁심 나 없이 재미있게 노는 걸 못 참겠음	술자리에서 소외되기 싫음	존재감 욕구
샌님 이미지를 벗고 싶음	모범생 이미지 변화	
맨 정신에는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답살 평소에 다른 사람 신경을 많이 씬 알지 못했던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음	자기표현의 어려움	자기표현의 어려움
사람들과 더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음	깊은 대화	술의 긍정적 효과 경험
감정적 정화	감정적 정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됨 기억을 잃음	인지 및 행동기능 저하	술의 부정적 효과 경험
물건을 잃어버림	금전적 손해	

타인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게 됨 부모님 및 이성친구와 다툼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	학업 수행에 지장	
구토 및 속이 안 좋음 살이 찌م	부정적인 신체적 효과	
고시에 합격	미래가 결정됨	
출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우리는 매여 있지 않음	대학생은 책임감이 덜 요구됨	타임 아웃
술을 마셨을 때 모습이 '진짜 나' 부끄러운 경험도 추억	음주 후 실수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음주후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줄이려고 해도 친구들이 놓아주지 않음 줄여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과 음하게 됨	음주조절 다짐이 오래가지 않음	음주지속
나의 삶에 만족스러움 진심으로 줄여야겠다고 생각되지 않음	음주조절의 필요성이 체감되지 않음	
음주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관리 술을 거절할 수 없는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함 혼자 마시는 빈도를 줄임	음주 조절 노력	음주조절 노력

두 집단의 차이는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문제음주 개선집단의 중재적 조건은 음주 동기 약화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금주에 도움을 주는 내·외부적 요소들을 발견이었으며, 그 결과로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문제음주 지속집단의 중재적 조건은 타임 아웃이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음주후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었고, 결과는 음주지속과 음주조절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그림 2와 3에 제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집단별로 각각 8, 10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이들 중 두 집단의 차이가 드러나는 범주를 중심으로 하위 범주 및 개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제음주 개선집단의 ‘음주 동기 약화’, ‘금주에 도움을 주는 내·외부적 요소 발견’ 범주에 대한 분석 내용과 문제음주 지속집단의 ‘애주가와 친해짐’, ‘존재감 욕구’, ‘자기표현의 어려움’, ‘타임 아웃’, ‘음주후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 범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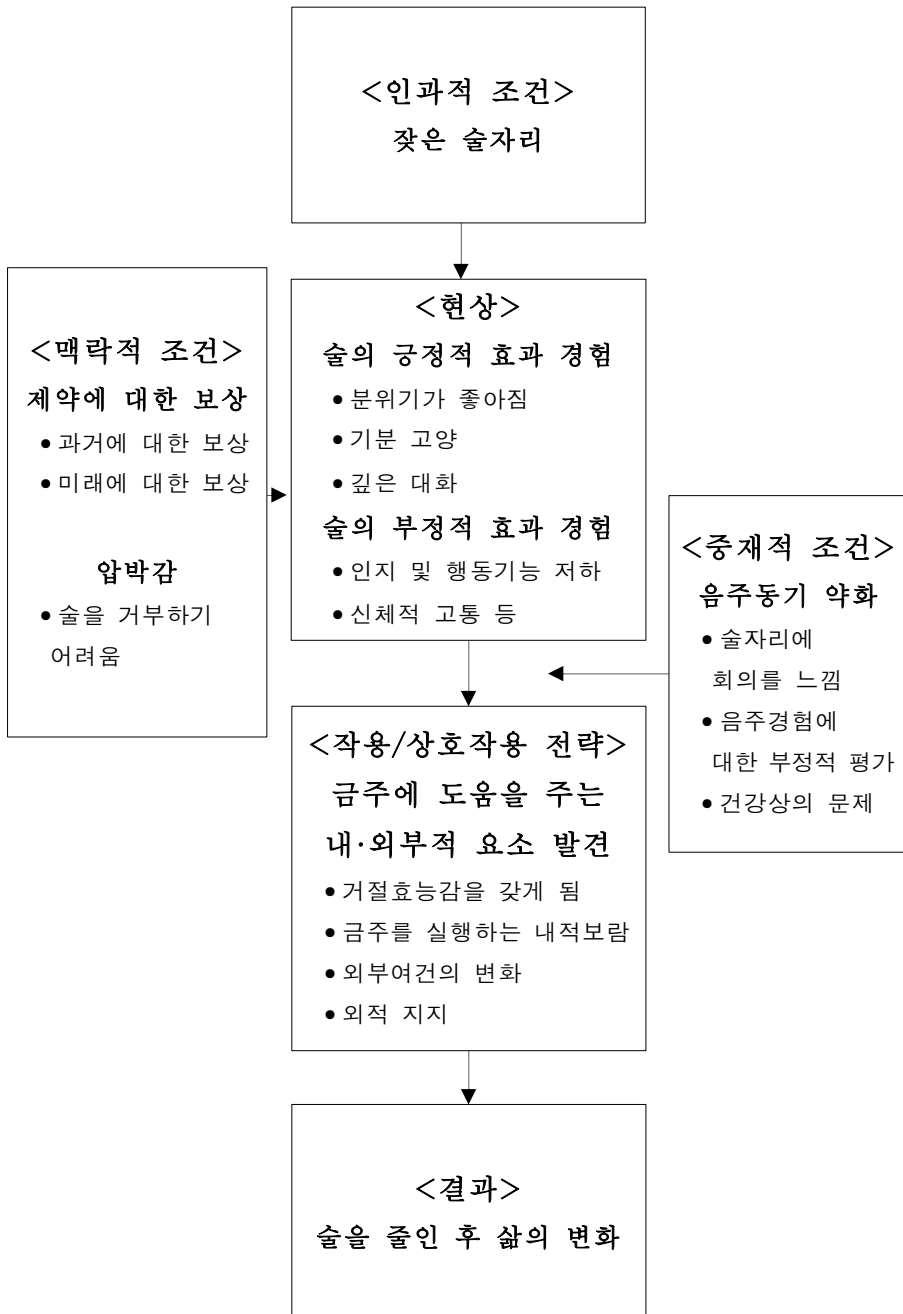


그림 2. 문제음주 개선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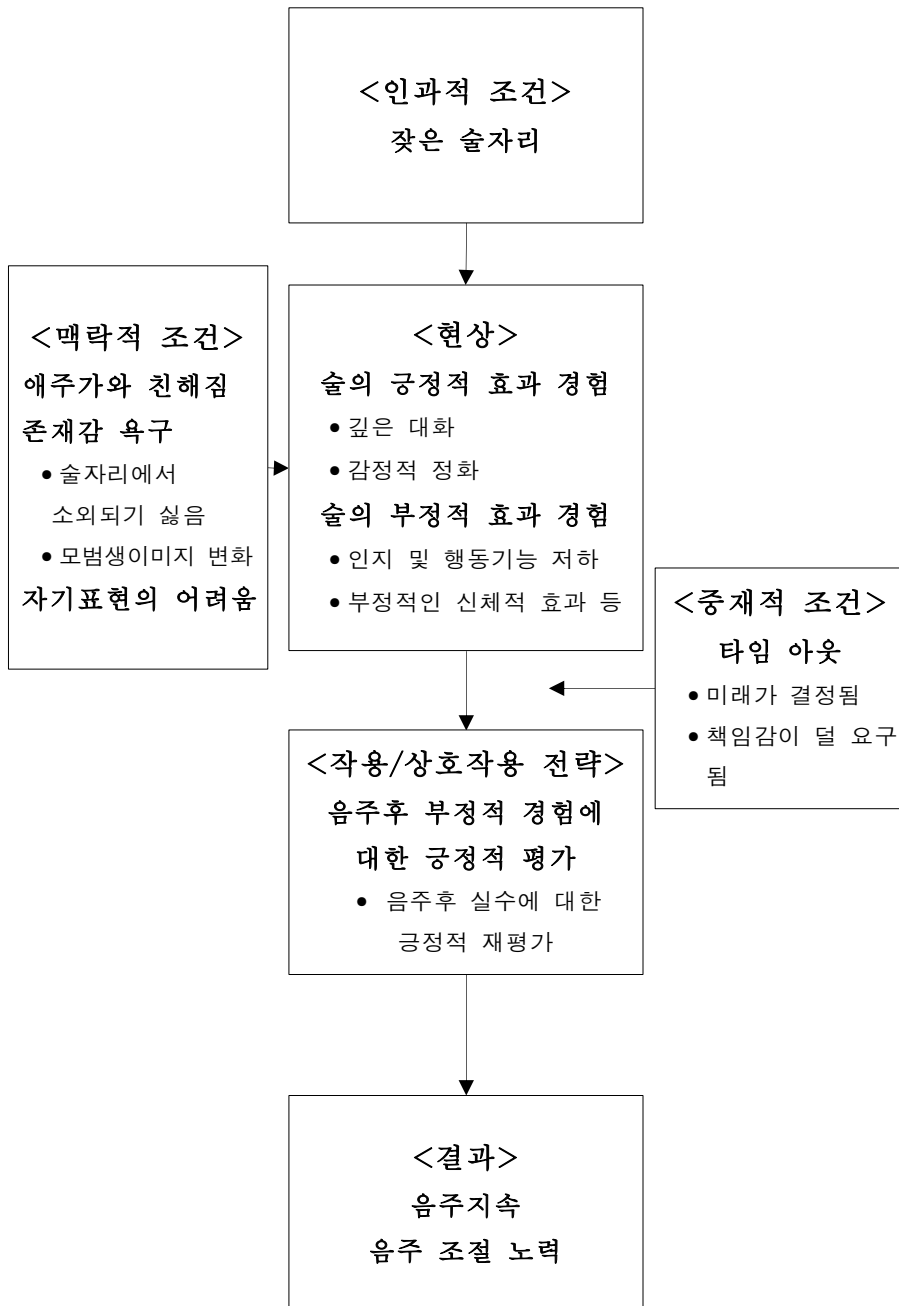


그림 3. 문제음주 지속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문제음주 개선집단 - 음주 동기 약화 분석

술을 줄이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묻고 참여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총 3개의 개념과 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술자리에 회의를 느낌

● 술자리에 회의를 느낌

개선집단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술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술자리에서 맺어진 인간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술자리에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친구들이 부르긴 불러요. 뭐 놀자 해서 이태원이나 이런 데로 부르긴 하는데, 큰 이유는 이제 귀차니즘도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아, 놀러 나가야지’ 할 텐데 지금은 ‘아, 가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여자1>

1학년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서, 되게 부질없음 이런 걸 많이 느껴서 과에 막 술 먹는 분위기가 되게 심했었는데 먹고 났을 때 딱 그 때 뿐이더라고요. 되게 어색하고... 정말 진정한 만남은 깨어있을 때도 그런 건데 술 먹었을 때 친하고 이런 거는 다들 정신 풀려서 흥분해서 그럴 뿐이지, 피상적인 거죠 결국에는. <참여자 2>

항상 술 마시게 되면, 술 마시고 하는 말도 약간 술기운에, 술기운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그게 싫었어요. 술자리 때는 되게 친하고 이랬는데 깨고 나면은 그 때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소모적인 관계가 되는 것도 싫고. <참여자 3>

처음에는 술자리 문화가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소개하고, 새로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 것들에 별로 흥미도 동하지 않고, 굳이 술을 마시면서 친해져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는 친해진다 고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취중에 친해졌다 보니까 친해지는 동기는 될 수 있어도 막상 시간 지나고 보면 별로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2) 음주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

• 부정적 경험을 돌아보며 후회

개선집단 참여자들은 폭음 후에 필름이 끊기거나, 구토 및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였다. 이를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자기혐오감을 느끼고, ‘생산적으로 살아야했다’며 후회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음주 후 자신이 행한 실수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때 흑역사... 그니까 선배들이 춤을 춰라 그러면 춤을 추고 덤블링을 하라 하면 덤블링을 하고 거의 강아지처럼 다 했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이 찍었던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선배들이 부르는 술자리 절대 안 나갔죠. 그 영상 보면서 뛰어 내리고 싶었어요. 후회가 많았죠. 전까지 친했던 선배들... 물론 그 다음에도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제 쪽에서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켕기는 게 있으니까 민망해하고 약간 거리가 서먹서먹해졌었죠. 제가 거리를 뒀죠. <참여자 1>

술 먹고 막 흥분해가지고 기억 안날 때 보면, 자거나 그랬다고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토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건 좀 양호한데, 막

혼자 간다고 길바닥에서 쓰러져 자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었으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열심히 공부나 하지. 동아리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만 대고서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던…. <참여자 2>

제가 택시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이 좀 엄해서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그리고 택시타면 막차가 끊겼다는 건데 ‘막차까지 안 타고 뭐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택시 타는 거 자체가 좀 별로 부정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작년 9월에 막 마시다보니까 정신차려보니까 신천에서 집에까지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제가 탄 기억에도 없고,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탔는지도 모르고, 마지막에 너무 혐오감이 들어서 저한테,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 때 그 사건 이후로 작년 9월에 바로 끊었어요. <참여자 3>

3) 건강상의 문제

• 술이 몸에 맞지 않음

문제음주 개선집단 중 한 참여자는 음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제약, 금전적 손해 등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였는데, 이 같은 경험이 금주 결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앓고 있던 아토피가 좀 심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동아리도 하고 술도 되게 많이 마시고 이러다보니까 몸이 되게 피로했던 게 한계점을 넘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병원에 갔죠. 갔더니 여기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합병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있는 피부가 다 층층이 겹겹이 다 벗겨지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 가게 됐는데… 약

도 그냥 약도 아니고 면역재생?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깐 더더욱 약먹고 그러니까 간에도 부담되고, 대학병원 피부과까지 다니니까 돈도 엄청 많이 깨지고. <참여자 2>

문제음주 개선집단 - 금주에 도움을 주는 내·외부적 요소 발견 분석

문제음주 개선집단과 지속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절주 결심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심이 지속되는 시간이 달랐는데 문제음주 지속집단은 숙취에서 회복되면 금주 및 절주 결심이 약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문제음주 개선집단은 결심이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 개선집단에게 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거절효능감을 갖게 됨, 금주를 실행하는 내적 보람, 외부 여건의 변화, 외적 지지 등 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거절효능감을 갖게 됨

문제음주 개선집단 참여자들이 지속집단의 참여자들과 다른 점은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엠티, 학과에서 만 들어지는 술자리를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자리’로 인식했으며, 술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감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줄어들게 되며 술자리 참석이나 술 권유에 대한 거절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술자리에 안 가게 됨

종파(종강파티)나 개파(개강파티) 이런 것도 안 가려고 하고. 술 먹는 자리 있으면 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술자리에 갈 이유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밤에 만나기보다는 다들 낮에 만나고. <참여자 2>

술자리가 점점 뭔가 비슷하게 느껴져서 조금씩 안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초반에는 남아있었는데 나중 가니까 너무 지쳐서 아예 처음부터 참가를 안 하는 식으로 <참여자 4>

• 술 권유를 거절하게 됨

뭐 옛날 같았으면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재밌게 놀려고 막 마셨겠지만 이제는 받으면, 소주 받으면, 맥주야 맛있으니까 뭐 먹지만, 소주는 살짝 혀만 축이고 다시 내려놓고... 마시는 시늉만 하죠. <참여자 1>

2) 금주를 실행하는 내적 보람

• 금주하는 즐거움

음주 후 통제력을 상실한 경험을 했던 참여자들은 후회와 부끄러움, 자기혐오감을 느꼈으나 금주를 통해 통제감을 회복하면서 내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내적 보람과 즐거움은 금주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안 마시고 나를 통제하는 게 좋아요. 통제 불능의 내가 아니라. “아 이겼다!” 이런 느낌, 술자리(에 갔어도 술 안 마시고) 끝나면. <참여자 3>

3) 외부 여건의 변화

- 다른 사람들도 술자리에 나오지 않음

학과 및 학부 같은 집단단위의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절주 행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외부 요소 중 하나로 관찰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술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동조 동기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학년이 올라가니까 다들 자기 일을 챙기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저 말고도 안 나가는 친구들이 좀 늘기도 했고, 아 그리고 거의 약간 학부체제가 거의 와해되는 시기예요 그때가. 왜냐면 군대들도 많이 가고 해서. 그 때 막 처음에 모여서 막 마시자 했던 그 모임이 이제 거의 뭐, 이제 누구는 공부하러 가고 누구는 휴학하고 누구는 군대 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거기 가야겠지?' 이런 느낌이 덜 들게 한 것 같고. <참여자 4>

- 생활이 바빠짐

저학년과 달리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전공수업으로 인해 학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등 책임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저학년 때 보이던 문제음주 행동을 변화시킬 동기를 갖게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역하고 복학을 했을 때는 '복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난 그런 데 쓸 여유가 없어.' 이렇게 해서 술을 잘 안 마셨고 여름 방학부터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랑 놀아주는 데도 시간이 충분히 많이 뺏겼기 때문에, 또 여전히 공부도 할 게 많았고. 겨울에 고시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술고시를 준비를 하니까 더 마실 일이 없었죠. 그렇다고 공부를 백퍼 하는 건 아닌데 심정적으로 술 마시고 놀 정도의 여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여자 1>

4) 외적 지지

- **금주 결심에 대한 친구들의 응원**

금주 결심에 대한 외부의 강화가 금주 결심과 행동이 지속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도 또 “마셔, 마셔.”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잘했다. 잘 생각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고…. 제가 좀 불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술 안 마시는 게 되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참여자 3>

문제음주 지속집단 - 애주가와 친해짐 분석

면담과정에서 문제음주 지속집단은 술을 즐기는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이로 인해 술자리가 더 자주 만들어진다고 답하였다. 이에 따라 ‘술과 친화적인 친구 선택’이라는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1) 술과 친화적인 친구 선택

- **술을 즐기는 친구들과 가까워짐**

문제음주 지속 참여자들이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는 친구 및 환경을 선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술과 친화적인 태도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고, 그러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이 다 애주가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친구들이 애주가가 아니라 애주가가 친구들이 돼요. <참여자 6>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술을 안 마시는데 막 그렇게 가깝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12년 지기 친구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술자리에서 막 뭐 진짜 피터지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나눈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내면 깊숙이까지 가까워졌다는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벽이 있는? 예의를 차리고 배려를 해줘야 되고, ‘좋은’ 친구고, 이런 벽을 못 깬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친구들이고. <참여자 7>

초반에 신입생 다 모아서 하는 술자리가 거의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술자리를 몇 번 하다보면 대충 사람들 어떤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통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못 마시는 사람도 있고 잘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술자리들은 조금 더 작아지긴 하는데, 작아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예멤버처럼 술 잘 먹고, 술 먹고 나서 탈 없는 사람들 위주로 좀 더,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는 기숙사 살거나 아니면 자취하는 쪽에, 자취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술 마시기 더 편하니까 중간에 마시다가 10시에 가야되거나 이런 애들은 좀 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더 규모가 작아지고, 이제 못 마시는 사람들 좀 더 걸러내고. 걸러낸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본인들도 마시기 싫으니까 점점 나가고 이렇게. <참여자 8>

문제음주 지속집단 - 존재감 욕구 분석

음주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문제음주 지속 참여자들은 술을 거부하고 싶지 않고, 술자리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3개의 개념으로 묶고, 다시 2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술자리에서 소외되기 싫음

- 주량에 대한 자부심과 경쟁심

술에 관대한 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술을 잘 마시는 것을 하나의 능력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참여자들은 술을 잘 마시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길 원했다. 이는 술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의 능력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회사생활 해 본 건 아니지만 취직해서도 술 잘 마시고 좀 그렇게 노는 걸 재밌게 잘 놓고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는 일단 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중략> ‘아, 그래도 나는 술을 어느 정도 마실 수 있는 편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구나.’ <참여자 5>

학과별로 어느 학과가 술을 잘 마신다더라 아니면 단과대 안에서도 어느 반이 술을 막 엄청나게, 몇 짹을 마셨다더라 누가 엄청나게 마신다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 1학년 때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철이 없어서 서로 술을 잘 마신다는 거를 ‘내가 누구보다 술을 잘 마신다, 내 주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를 약간 좀 뽐튀기 하거나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행을 가서도 친한 친구들 네댓 명이서 상하이 가서 마지막 날 편의점에서 온갖 독한 술 사가지고 바닥 깔고 앉아서 막 마시면서 서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술을 더 잘 마시니, 너는 못 마시니” 거기서 이제 막 술 배틀을 했죠. <참여자 5>

다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데 짹 하는데 나만 빠질게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절대 술을 못 먹진 않는다’ 지기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센척하고 싶은 건가. 뭔가 허약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약해보인다고 해야 하나. 술은 그냥 니들이 마시는 만큼 나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참여자 7>

- 나 없이 재미있게 노는 걸 못 참겠음

제가, 사람들이 저 없이 즐거운 술자리를 갖는 걸 제가 못 견뎌요. 나 없이 애들이 뭔가 재밌게 놀 거 같은 걸 약간 못 참겠는 게 있어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니까 제가 술자리 거절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가면은 정말 애들이 저 없이 정말 재밌게 놀 것 같고, 술자리가 뽐뽐 터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참여자 6>

2) 모범생 이미지 변화

- 샌님 이미지를 벗고 싶음

‘**대생들은 잘 못 놀 것이다’ ‘**대생들은 술도 잘 안 마시고 공부만 하는 샌님?’ 약간 그런 이미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더 마시게 되는... **대생에 대한 편견? 스테레오 타입에 반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문제음주 지속집단 - 자기표현의 어려움 분석

문제음주 지속집단 참여자들은 면담과정에서 술을 마셨을 때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다르며, 술을 마시면 자기 표현이 더욱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3개의 개념을 ‘자기표현의 어려움’ 하위범주로 묶고, 범주로 도출하였다.

1) 자기표현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등 술

직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답답함 같은 정서적인 불편함을 느끼지만,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문제음주 지속집단에서 나타난 수줍음,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와 자기표현의 어려움이 음주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맨 정신에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닭살**

특히나 좀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남자들끼리는 좀 원래 좀 깊은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사실은 남자들끼리 카톡하는 거 보면 ㅇㅇ, ㅎㅎ, “뭐해?”도 “ㅇㅎ” 이렇게 쓸 정도로 다들 말을 깊게 하는 걸 별로 좀 불편해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을 좀 “감수성이 좀 너무 풍부하다”, “그런 것 좀 하지마라” 막 이렇게 장난삼아라도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남자들끼리는. 그래서 뭐 깊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상대방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자들이 술을 마시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이제 남자 같은 성향이 되게 커서 이렇게 막 깊은 이야기는 맨 정신에 하면 저도 막 닭살 돋고, 그래서 술 한 잔 정도 하면 더 잘 통하더라고요. <참여자 8>

- **평소에 다른 사람 신경을 많이 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원래는 성격이 되게 밝고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나서는 거 좋아하고 리드하는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런 걸 많이, 사회적인 시선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나서는 애들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걸 느끼게 되고 ‘나댄다’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게 좀 튀어나와 있으면 튀는 거니까….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나서부터 더 말도 아끼게 되고 주목받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근데 술을 마시면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참여자 7>

아빠가 제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이야 되게 이제 한 부모 가정이 되게 흔한데, 그 때는 특히나 지방이고 하니까는, 뭘 잘못해도 그런 게 되는 거죠. ‘집에서 못 배워서 그렇다.’ <중략>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남들이 ‘아빠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막 신경 쓰다가 술 마시면 신경 안 쓰니까, 그런 해방감을 느끼려고 마셨던 것 같아요, 스무 살 때는. ‘술 마시면서 단순하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그런 면죄부가 주어진 느낌이잖아요. <참여자 9>

- **알지 못했던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음**

사실 나는 이걸 답답하다고 못 느꼈는데 술을 마시면 하게 되는 얘기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게 힘들었구나’ 뒤늦게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니까 뭐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이러이러한 내가 생각했던 것들, ‘아, 이게 내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이구나’가 술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참여자 7>

문제음주 지속집단 - 타임 아웃 분석

면담 과정에서 문제음주 지속집단의 참여자들은 대학생 시기를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로 인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3개의 개념을 2개의 하위 범주로 묶고, 다시 타임 아웃이라는 범주로 추상화해 제시하였다.

1) 미래가 결정됨

- **고시에 합격**

고시에 합격하여 미래가 결정되면서,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약화되었고, 이러한 해방감이 음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유예하고 있어요. <중략>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거나 학점 엄청나게 챙겨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거의 그냥 계속 마시는 거거든요. <중략> 자주 마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은 뭐 취업준비 중인데, 아는 사람 통해서 인터뷰가 들어오고 인터뷰 해가지고 하는 거여서, 그리고 3학점 밖에 안 듣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한명은 CPA 붙어서 12월에 입사하는 상황이고, 한 명은 취업준비 이제 시작하는데 개도 학점 거의 다 들어가지고 학점 되게 적게 듣고... 약간 잉여로운 애들이예요. 그런 사람끼리 먹고. 근데 후배들은 이제 뭐 로스쿨 생각 있는 애들은 학점 챙겨야 되고, 공부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개네들은 다른 양태를 보이게 되죠, 음주에 있어서. <참여자 9>

2) 대학생은 책임감이 덜 요구됨

참여자들은 음주 후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 수업의 출석이 직장만큼 의무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출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가야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걸 못 갔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꼭 술을 안 마셨어도 가기 싫어서 안 갈수도 있는 수업이 있잖아

요. 안 가도 딱히 그게 없다, 이러면 마시고 일어나면 가는 거고 못 일어나면 못 가는 거고 이런 거죠. <참여자 7>

근데 학교 열심히 안 다녔어서 1학기 때는…. 근데 제가 가야되는데 못 갔다고 느끼면 지장이 있는 건데…. 그니까 지장을 어느 수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지장이라고 보면 지장인 것 같은데 뭐 정말 해야 되는 일을 놓쳤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진짜 뭐 내 신변에 영향을 주는 일이거나 그런 거는 술 때문에 놓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게으름 때문이죠. <참여자 9>

● 매여 있지 않음

젊고 우리는 뭐 회사 같은 거에 매여있지 않으니까. 회사원들은, 솔직히 지금 회사 취직한 친구들 봐도 되게 그걸 꺼려하더라고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대학교는 수업하나 빠지는 게 절절하진 않지만 회사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술 먹고 가는 것도 그렇고, 못 가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불금이 왜 생겨났겠어요. 우리에게겐 불금따윈 없어요. 불수, 불화 아무 상관없으니까. <참여자 7>

문제음주 지속집단 - 음주후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분석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술을 마신 후에 경험하는 긍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총 2개의 개념과 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음주 후 실수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 술 마셨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나'

술을 마시고 통제의 노력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됐을 때 본인의 모습을 ‘진짜 내 모습’, ‘친구들 앞에서 솔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이 문제음주 지속 참여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이목과 평가를 신경 쓰는 성향이 있을 경우 더 두드러졌다.

술 마시면 감정이 좀 뭐랄까 격해진다 해야 하나. 그래서 별거 아닌 말에도 감동을 잘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는 우는 거를 좋아해요. 울면 막, 평소에 또 잘 안 울어서 그럴겠지만 오랜만에 남 눈치 볼 거 없이 평평 울고 나면 뭔가 되게 속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고... 술 마시고 그러면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내 감정에 솔직하구나, 솔직한 상태구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고. <참여자 5>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죠. 없던 애교가 생겨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주사도 먹이는 거다 보니까 싸우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는 술 먹었을 때 모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좋아한다고 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할 용기가 안 나는데 그걸 못 깨니까 그렇게 하기 힘든데, 왜냐면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아온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근데 술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내면의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요. <참여자 7>

그냥 남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중략>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는 그냥 나라는 건데 내 모습을 민망해할 필요가 있나, 그냥 오히려 내가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애들을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그런 모습을 민망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9>

- 부끄러운 경험도 추억

음주 후 부끄러운 경험을 한 직후에는 후회와 자괴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경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술 먹고 내가 한 짓이 이렇게 공개적인 데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역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술 쳐 먹고 저러는 거 노답’ 이렇게 욕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충격도 많이 받고... ‘왜 그랬을까’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당분간 또 그런 계기가 돼서 과음을 안했었는데 <중략> 1, 2년 지나고 나서는 친구들한테 “야, 나 예전에 베스트게시물에 올라간 적이 있어.” 일종의 추억으로 미화가 돼가지고. <참여자 5>

논 의

연구 II는 연구 I에서 적응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이 실제 현상에서 어떻게 음주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의 문제음주 개선 및 지속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관찰함으로써 두 집단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실제 현상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문제음주 개선집단과 지속집단의 공통점은 모두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본격적인 음주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집단 모두 입학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MT, 학과·동아리별 모임, 미팅 등 잦은 술자리를 경험했으며, 이런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또한 이런 모임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고 술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경험하는 것도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대화가 진솔해지는 긍정적 경험을 했다. 숙취와 구토 같은 신체적 고통, 단기기억 상실이나 물건을 잃어버리고, 타인과 다투는 등의 부정적 경험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대학 입학 후 잦은 술자리와 음주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의 차이점은 우선 성격적 특성을 꼽을 수 있다. 문제음주 지속집단의 경우 맥락적 조건에서 ‘자기표현의 어려움’이라는 성격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게 되고, 쑥스러움을 느껴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자기표현의 어려움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신경주, 김유숙, 2009). 문제음주 지속 참여자들은 술을 통해 사회적 장면에서 느끼는 수줍음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가 완화되는 경험을 하면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동기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 I에서 적응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낮은 문제 중심적 대처와 높은 신경증 성향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문제음주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지 보여주는 것이다.

술의 긴장 완화 효과는 술자리에서 더 솔직한 자기표현을 하도록 촉진한다. 이러한 음주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문제음주 개선집단 참여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했으며, 술자리에서 친해진 인간관계를 돌아보며 ‘덧없음’을 느꼈다. 반면 지속집단 참여자들은 ‘취했을 때 모습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술을 통해 인간관계가 더 깊어진 느낌’을 보고했다. 또한 술자리에서 보인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그라지고 실수는 추억으로 미화되었다. 다시 말해 개선집단에서는 ‘술자리에서 느꼈던 흥미 상실’과 ‘음주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음주 동기를 약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집단에서는 음주후 실수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음주 지속으로 이어지게 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억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 학생들이 높은 음주량을 보이며(Wood et al., 1992), 탈억제 성향은 2년 후 음주수준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변인이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chall, Weede, & Maltzman, 1991).

두 집단의 또 다른 차이점은 친구의 영향이었다. 문제음주를 지속하는 집단은 친구들도 술을 잘 마신다고 보고했으며,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재미없고’, ‘밋밋하게’ 느끼는 것으로 관찰됐다. 이에 따라 지속집단에서는 친구의 영향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축코딩되었다. 반면 문제음주 개선집단은 술자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술자리에 참여하더라도 술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관찰됐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러한 거절효능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선집단은 친구의 영향이 술을 줄이겠다는 결심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축코딩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음주양상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음주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와 환경을 선택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앞서 Read, Wood, Davidoff, McLacken와 Campbell(2002)은 본격적인 음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음주규준이 형성되며, 폭음을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음주규준을 바탕으로 폭음을 하는 환경을 찾아간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

더불어 문제음주 지속집단에서 대학생 시기를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로 인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들은 수업 출석과 과제를 크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회사에 매여 있지 않은 대학시기를 폭음이 허용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학생 시기를 높은 책임감이 부여된 현실 세계로부터의 타임 아웃으로 지각하고 이것이 폭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olby et al., 2009). 이 같은 인식은 ‘음주후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촉진하는 중재적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음주양상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개선집단은 금주와 절주노력으로 건강 회복과 금전적 절약, 학점 상승, 개인시간 증가 같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집단 역시 술의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더 많이 체감하는 등 삶이 만족스럽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개선집단은 금주 후 삶이 다소 단조로워졌고, 예전처럼 타인과 깊이 있게 고민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답하는 등 술의 긍정적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속집단 역시 나름대로 술을 조절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등 술의 부정적 효과를 간과하지 않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 II의 범주화 및 패러다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음주 개선집단과 지속집단 간 3가지 주요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입학 후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음주후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였다. 둘째, 지속집단은 수줍음과 사회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술을 통해 완화시키는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음주후 부정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음주양상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여기에는 자신과 유사한 음주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는 선택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후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많은 대학생들이 성인 초기에 겪는 광범위한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음주량과 빈도는 이러한 음주경험이 쌓이면서 개선되거나 지속되는데, 어떠한 인지적·심리적 메커니즘을 거쳐 문제음주 행동이 개선되거나 지속되는지 밝히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고적인 보고를 질적 방법으로 분석해 문제음주 개선과 지속에 기여하는 심리적 요인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총 합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 등 문제음주의 세 가지 측면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과 성격에 따라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폭음은 대학생 시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폭넓은 현상임을 감안하여 대학 시기에만 문제음주 행동을 보이는, 즉 발달적으로 제한된 문제음주자와 지속적 문제음주자를 구별해주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진행한 연구 I 과 II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I에서는 성별과 성격에 따라 음주패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과 음주빈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음주문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회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친구의 영향이었다.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친구의 영향과 고양동기 및 사교동기, 부정적 음주기대가 음주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여학생은 대처동기와 부정적 음주기대가 음주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성격과 관련해서 감각추구 성향은 고양동기, 사교동기 등 술의 정적 강화와 관련된 동기 및 사회적 동기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신경증 성향은 대처동기와 동조동기 등 술의 부적 강화와 관련된 동기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감각추구 성향이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매개를 거쳐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한 결과 1회 음주량과 음주빈도, 음주문제는 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문제음주 양상이 반드시 부적응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은 성별, 동조동기, 신경증, 문제 중심적

대처,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신경증과 문제 중심적 대처의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폭음행동을 보이는 대학생 중 신경증 성향이 높고, 문제 중심적 대처 양식을 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큰 임상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 II에서는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대학생의 문제음주 개선과 지속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관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I에서 적응성을 고려하여 보다 큰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하위집단을 선별하고자 했으나, 이는 횡단적인 자료를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은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즉 음주양상은 음주경험이 누적되면서 변화한다. 이에 따라 연구 I에서 문제음주 대학생의 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변인이 종단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음주의 지속과 관련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참여자들의 회고적 보고를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제음주 개선집단과 지속집단은 모두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음주를 시작하였으며, 잦은 술자리가 반복되면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음주후 긍정적·부정적 결과들을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편 문제음주 지속집단의 참여자들에게서 솔직한 자기표현을 어려워하는 성격 특성이 관찰되었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장면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음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밖에 친구의 영향이 음주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관찰 할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음주양상에 있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여기에는 자신과 유사한 음주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는 선택 효과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개선집단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 반면, 지속집단은 술과 친화적인 사람을 친구로 선호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단순히 술에 관대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폭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허용적인 친구와 환경을 선택한 결과로서 폭음이 지속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대학생 시기를 인생의 타임 아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음주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 지속집단은 취업이 확정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대학 시기를 무언가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이 음주량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성격에 따라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문제음주의 세 가지 측면, 음주량과 음주빈도,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요인들은 서로 상이하며, 성별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음주는 다양한 변인들의 복잡한 함수를 통해 만들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과 성격에 따라 음주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함으로써 대학생의 문제음주 행동에 차별적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적응성을 고려하여 문제음주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폭음은 대학재학 시기로 한정되며 졸업 후에는 음주량과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Ham & Hope, 2003). 문제음주 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이 모두 알코올 사용 장애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것은 대학생 시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문제음주 대학생 중에서 더 높은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하위 집단을 선별하기 위한 변인을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문제음주양상의 개선 및 지속과정에 관여하는 심리적 변인을 탐색하였다. 선행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횡단적으로 설명해주긴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종단적으로 문제음주의 지속을 예측해주는지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문제음주 개선과 지속과정에 대해 회고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근거 이론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측정도구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 대학생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문제음주행동을 개선 혹은 지속하는지 정교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고려 사항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임상 집단이며, 특정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음주양상은 지역과 대학학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응성과 문제음주의 지속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이 다른 집단에서도 예측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음주 지속 참여자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음주량과 빈도, 음주문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학 시기에만 문제음주 행동을 나타내는 발달적으로 제한된 문제음주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들은 음주의 부정적인 결과를 간과하지 않고 나름대로 술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학업 수행이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적응이 시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종단 연구를 통해 부정 정서 및 대처양식 같은 변인들이 대학 졸업 이후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예측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관련된 변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양적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 문제음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음주 대학생 중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하위 집단을 선별하여 조기개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석도 (2000). **음주기대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 기대이론과 기대-가치이론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석, 이연희 (2003).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25-541.
- 류미, 이민규, 신희천 (2010). 대학생의 폭음 관련 사회인지적 요인과 음주 정도의 관계-지각된 음주규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1), 63-79.
- 서경현, 조은희 (2011). 감각추구 성향 및 음주에 대한 기대와 음주동기 및 문제음주 간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2(1), 1-14.
- 신영주, 김유숙 (2009).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 과정-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683-710.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난미 (2010). 성, 음주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문제 이해. **상담학연구**, 11(4), 1707-1727.
-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 이유리, 권정혜 (1997). **비행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관한 일 연구-사회 학습 이론 모형과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2010). 음주실태 및 음주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이지현, 제갈정, 김동학 (2010).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채숙희 (2006). 알코올의존의 재발 모형 개발: 심리적 위험요소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21-142.
- 천성수 (2002). 대학생폭음의 원인과 음주관련문제 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2), 221-233.
- 천성수, 손애리, 송창호, 이주열, 김선경 (2003). 대학생폭음에 의한 폐해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전국 60개 대학교 조사결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2), 119-135.
- Agostinelli, G., Brown, J. M., & Miller, W. R. (1995). Effects of normative feedback on consumption among heavy drink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rug Education*, 25(1), 31-40.
- Aldao, A., & Nolen-Hoeksema, S. (2010). Specificity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 transdiagnostic examin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974-983.
- Aldao, A., & Nolen-Hoeksema, S. (2012). The influence of context on the implementation of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50(7-8), 493-501.
- Baer, J. S. (1994). Effects of college residence on perceived norms for alcohol consumption: An examination of the first year in colleg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8(1), 43.
- Baer, J. S. (2002). Student factors: Understanding individual variation in college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0-53.
- Baer, J. S., Kivlahan, D. R., Blume, A. W., McKnight, P., & Marlatt, G. A. (2001). Brief intervention for heavy-drinking college students: 4-year follow-up and natural histor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8), 1310-1316.

- Brown, S. A., Goldman, M. S., Inn, A., & Anderson, L. R.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419.
- Burke, R. S., & Stephens, R. S. (1999). Social anxiety and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A social cognitive theory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5), 513–530.
- Camatta, C. D., & Nagoshi, C. T. (1995). Stress, depression, irrational beliefs, and alcohol-use and problems in a college-student sample. *Alcoholism-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1), 142–146.
- Carney, M. A., Armeli, S., Tennen, H., Affleck, G., & O'Neil, T. P. (2000). Positive and negative dairy events, perceived stress, and alcohol use: A diary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788–798.
- Caspi, A., Moffitt, T., Newman, D., & Silva, P. (1996). Behavioral observations at age 3 predict adult psychiatric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033–1039.
- Chen, K., & Kandel, D. B. (1995). The natural-history of drug-use from adolescence to the mid-thirties in a general-population sampl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1), 41–47.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6), 573–588.
- Colby, S. M., Colby, J. J., & Raymond, G. A. (2009). College versus the real world: Student perceptions and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heavy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4*(1), 17–27.

-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17.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90-1005.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Frone, M. R., & Mudar, P. (1992). Stress and alcohol-use -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139-152.
- Corbin, W. R., Bernat, J. A., Calhoun, K. S., McNair, L. D., & Seals, K. L. (2001). The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sexually victimized and nonvictimized college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4), 297-311.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CA: Sage.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15)
- Cronin, C. (1997). Reasons for drinking versus outcome expectancies in the prediction of college student drinking. *Substance Use Misuse, 32*(10), 1287-1311.
- Fillmore, K. M. (1974).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in Early Adulthood and Middle-Age - Exploratory 20-Year Follow-up Study.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Part A, 35*(3), 819-840.
- Fillmore, K. M. (1975). Relationships between Specific Drinking Problems in Early Adulthood and Middle-Age -

- Exploratory 2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6(7), 882-907.
- Ham, L. S., & Hope, D. A. (2003). College students and problematic drink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5), 719-759.
- Hingson, R. W., Heeren, T., Zakocs, R. C., Kopstein, A., & Wechsler, H. (2002). Magnitude of alcohol-related mortality and morbidity among US college students ages 18-24.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2), 136-144.
- Karyadi, K. A., & King, K. M. (2011). Urgency and negative emotions: Evidence for moderation on negative alcohol consequ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5), 635-640.
- Kassel, J. D., Jackson, S. I., & Unrod, M. (2000).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negative mood regulation and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2), 332-340.
- Larimer, M. E., Irvine, D. L., Kilmer, J. R., & Marlatt, G. A. (1997). College drinking and the Greek system: Examining the role of perceived norms for high-risk behavior.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6), 587-598.
- Lewis, B. A., & O'Neill, H. K. (2000). Alcohol expectancies and social deficits relating to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25(2), 295-299.
- Martin, C. M., & Hoffman, M. A. (1993). Alcohol expectancies, living environment, peer influence, and gender: A model of college-student drink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 McCabe, S. E. (2002). Gender differences in collegiate risk factors for heavy episodic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 Mccarty, D., & Kaye, M. (1984). Reasons for Drinking – Motivational Patterns and Alcohol-Use among College-Students. *Addictive Behaviors*, *9*(2), 185-188.
- McLaughlin, K. A., Hatzenbuehler, M. L., Mennin, D. S., & Nolen-Hoeksema, S. (2011). Emotion dysregulation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9), 544-554.
- Miranda, R., Meyerson, L. A., Long, P. J., Marx, B. P., & Simpson, S. M. (2002). Sexual assault and alcohol use: Exploring 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Violence and Victims*, *17*(2), 205-217.
- Nolen-Hoeksema, S., & Harrell, Z. A. (2002). Rumination, depression, and alcohol use: Tests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6*, 391-403.
- O'hare, T., & Sherrer, M. V. (2000). Co-occurring stress and substance abuse in college first offender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1), 29-44.
- O'Neill, S. E., & Sher, K. J. (2000). Physiological alcohol dependence symptoms in early adulthood: A longitudinal perspective.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8*(4), 493-508.
- Pearson, M. R. (2013). Use of alcohol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among college students: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8), 1025-1040.
- Read, J. P., Wood, M. D., Davidoff, O. J., McLacken, J., & Campbell, J. F. (2002). Making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The role of alcohol-related social

- influence factors in students' drinking. *Substance Abuse*, 23(1), 53 - 65.
- Reis, J., & Riley, W. L. (2000).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alcohol consumption: Implications for student educa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1(3), 282-291.
- Rohsenow, D. J. (1982). Social Anxiety, Daily Moods, and Alcohol-Use over Time among Heavy Social Drinking Men. *Addictive Behaviors*, 7(3), 311-315.
- Ruiz, M. A., Pincus, A. L., & Dickinson, K. A. (2003). NEO PI-R predictors of alcohol use and alcohol-related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1(3), 226-236.
- Schall, M., Weede, T. J., & Maltzman, I. (1991). Predictors of alcohol consumption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7(1), 72 - 80.
- Stewart, S. H., Zvolensky, M. J., & Eifert, G. H. (2001). Negative-reinforcement drinking motive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sensitivity and increased drinking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2), 157-171.
- Strauss, A. L.,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CA: Sage. (신경림 역.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2001)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Office of Applied Studies (2008). *Results from the 2007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ational Findings (DHHS Publication No. SMA 08-4343, NSDUH Series H-34)*. Rockville, M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 Thombs, D. L. (1993). The differentially discriminating properties of alcohol expectancies for female and male drink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3), 321-325.
- Tran, G. Q., Haaga, D. A. F., & Chambless, D. L. (1997). Expecting that alcohol use will reduce social anxiety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social anxiety and alcohol consump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5), 535-553.
- Turrisi, R., Wiersma, K. A., & Hughes, K. K. (2000). Binge-drinking-related consequences in college students: Role of drinking beliefs and mother - teen communication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4), 342.
- Valliant, P. M., & Scanlan, P. (1996). Personality, living arrangements, and alcohol use by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4*(2), 151-156.
- Vollrath, M., & Torgersen, S. (2002). Who takes health risks? A probe into eight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185-1197.
-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B., & Castillo, S. (1994).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Drinking in College - a National Survey of Students at 140 Campuses.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21), 1672-1677.
- Wechsler, H., Dowdall, G. W., Davenport, A., & Rimm, E. B. (1995). A Gender-Specific Measure of Binge Drinking among College-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7), 982-985.

- White, H. R., & Labouvie, E. W. (1989). Towards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1), 30-37.
- Wood, M. D., Nagoshi, C. T., & Dennis, D. A. (1992). Alcohol norms and expectations as predictors of alcohol-use and problems in a college-student sampl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8*(4), 461-476.
- Zucker, R. A. (2008). Anticipating problem alcohol use developmentally from childhood into middle adulthood: what have we learned? *Addiction*, *103*, 100-108.
- Zucker, R. A., & Gomberg, E. S. (1986). Etiology of alcoholism reconsidered: The case for a biopsychosocial process. *American Psychologist*, *41*(7), 783-793.

부 록

- 부록 1. 음주패턴
- 부록 2. 음주 문제 척도
- 부록 3. 과거 문제 음주
- 부록 4. 친구의 영향
- 부록 5. 음주 동기 척도
- 부록 6. 음주 기대 척도(Alcohol Expectancy Scale, AES)
- 부록 7. 감각추구 성향 척도
- 부록 8.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신경증 척도
- 부록 9. 대처 양식 척도
- 부록 1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 부록 11. 대인관계 만족도 검사(Tes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 부록 12.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 부록 13.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 척도
- 부록 14. 학업 적응도
- 부록 15. 심층면담 질문목록

부록 1. 음주 패턴

◆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은 술을 한 번 마실 때 보통 얼마나 마셨습니까? 술을 한번 마실 때, 보통 마시는 양을 맥주로 표현하면 얼마나 됩니까? (1회 평균 주량)

- 0) 전혀 안 마심 1) 250cc 미만 2) 250~500cc 3) 500~750cc
4) 750~1000cc 5) 1000~1500cc 6) 1500~2000cc 7) 2000~2500cc
8) 2500~3000cc 9) 3000~4000cc 10) 4000~5000cc 11) 5000cc 이상

주로 마시는 술이 소주인 경우에는 직접 적어 주십시오.

소주 () 병 (1병이 안 되는 경우에는 1/2병이나 1/4병 같이 분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습니까?

- 0)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1) 2, 3개월에 한번 정도 2) 월 1회 정도
3) 월 2~3회 4) 주 1~2회 5) 주 3~4회 6) 거의 매일

부록 2. 음주 문제 척도

◆ 다음은 음주와 관련된 경험들입니다. 당신이 다음 각각의 경험들을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해당란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적 없다 1	한번 그런적 있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항상 그렇다 5
<hr/>					
	전혀 그런 적 없다	한번 그런 적 있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거의 항상 그렇 다
1. 과음으로 인해 수업에 지각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술을 마신 뒤에 가족 중 누군가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술로 인해 약속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못 지킨 적이 있다.	1	2	3	4	5
4. 술에 취해 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5. 술 때문에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1	2	3	4	5
6. 술을 마신 뒤에 가족 중 누군가를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7.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후에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	1	2	3	4	5
8. 술을 마시는 동안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9. 친구로부터 술을 줄이거나 끊으라는 얘기를 듣는다.	1	2	3	4	5
10. 내가 술을 자주 혹은 많이 마셔서 또는 취중 행동 때문에 친구(이성 친구 포함)와 다툼 적이 있다.	1	2	3	4	5
11.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술 취한 후에 언쟁을 벌이게 된다.	1	2	3	4	5
12. 술을 마신 뒤에 부모님 혹은 이성친구와 마찰이 생긴다.	1	2	3	4	5
13.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이나 취중 행동 때문에 윗사람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5

- | | | | | | |
|--|---|---|---|---|---|
| 14. 술주정(주사)을 한다. | 1 | 2 | 3 | 4 | 5 |
| 15. 술 때문에 사고를 당해 다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16. 과음으로 인해 학교(혹은 아르바이트)에 결석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17. 부모님은 내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한다. | 1 | 2 | 3 | 4 | 5 |
| 18. 술 때문에 나의 의무나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 | 1 | 2 | 3 | 4 | 5 |
| 19. 술에 취해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20. 술 마시는 것 때문에 학업이나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 | 1 | 2 | 3 | 4 | 5 |
-

부록 3. 과거 음주 문제

◎ 다음은 과거의 음주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셨던 시기를 떠올리면서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는 과거에 현저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 1) 예 2) 아니오

◆ 나는 과거에 매우 잦은 빈도로 술을 마셨다.

- 1) 예 2) 아니오

◆ 나는 과거에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대인관계 갈등, 사고 및 싸움, 학업 능률 저하)를 자주 경험했다.

- 1) 예 2) 아니오

부록 5. 음주 동기 척도

◆ 다음에 제시되는 상황들을 하나 하나 떠올려 보시고,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이 각각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번호에 O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마시지 않는다 1	거의 마시지 않는다 2	가끔 마신다 3	자주 마신다 4	거의 항상 마신다 5		
							전혀 마시 지 않는 다	거의 마시 지 않 는다	가끔 마신 다	자주 마신 다	거의 항상 마신 다
1.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따들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1		2		3		4		5		
2.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1		2		3		4		5		
3.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1		2		3		4		5		
4. 슬플 때	1		2		3		4		5		
5.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1		2		3		4		5		
6.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 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고 싶을 때	1		2		3		4		5		
7.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고 싶을 때	1		2		3		4		5		
8. 스트레스를 받을 때	1		2		3		4		5		
9.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1		2		3		4		5		
10.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끼고 싶을 때	1		2		3		4		5		
11. 화가 났을 때	1		2		3		4		5		
12.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1		2		3		4		5		
13. 술 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감(혹은 인정)을 얻고 싶을 때	1		2		3		4		5		
14. 기분이 울적할 때	1		2		3		4		5		
15.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1		2		3		4		5		
16.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1		2		3		4		5		

부록 6. 음주 기대 척도(Alcohol Expectancy Scale, AES)

◆ 다음 내용들은 술을 마셨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다음 항목을 잘 읽어 보시고, **당신이 술을 마시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그럴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
 1 2 3 4 5

	전혀 그렇 지 않을 것이 다	그렇 지 않을 것이 다	보통 이다	그렇 것이 다	매우 그렇 것이 다
내가 술을 마시면					
1. 나는 사회적으로 더 잘 수용될 것이다.	1	2	3	4	5
2. 나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1	2	3	4	5
3. 나는 몸놀림이 어색해지고 사지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4. 나는 더 개방적이 될 것이다.	1	2	3	4	5
5. 나는 말이 거칠어 질 것이다.	1	2	3	4	5
6. 나는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1	2	3	4	5
7.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1	2	3	4	5
8. 나는 성욕을 더 느낄 것이다.	1	2	3	4	5
9. 나는 주의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10. 나는 더욱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11.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 질 것이다.	1	2	3	4	5
12. 나는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1	2	3	4	5

13. 나는 더 붙임성이 좋아질 것이다.	1	2	3	4	5
14. 나는 죄책감이 들 것이다.	1	2	3	4	5
15. 나는 더 사교적이 될 것이다.	1	2	3	4	5
16. 나는 슬프거나 우울해질 것이다.	1	2	3	4	5
17. 나는 왈칵떨린 분위기를 즐길 것이다.	1	2	3	4	5
18. 나는 성적으로 더 왕성해질 것이다.	1	2	3	4	5
19.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1	2	3	4	5
20. 나는 스트레스를 덜 느낄 것이다.	1	2	3	4	5
21.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1	2	3	4	5
22. 나는 숙취감에 시달릴 것이다.	1	2	3	4	5
23. 나는 머리가 아플 것이다.	1	2	3	4	5
24. 재미있을 것이다.	1	2	3	4	5
25. 나는 유쾌한 신체적 효과를 느낄 것이다.	1	2	3	4	5
26. 나는 정신이 맑지 못하고 졸릴 것이다.	1	2	3	4	5
27. 나는 불쾌한 신체적 효과를 경험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몸이 아플 것이다.	1	2	3	4	5
29. 나는 성적인 반응이 더 민감해질 것이다.	1	2	3	4	5
30. 나는 성적으로 더 적극성을 펼 것이다.	1	2	3	4	5
31. 나는 공격적으로 될 것이다.	1	2	3	4	5
32. 나는 싸우게 될 것이다.	1	2	3	4	5
33.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과 기분이 사라질 것이다.	1	2	3	4	5
34.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부록 7. 감각추구 성향 척도

◆ 다음 문항은 성격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들이 나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2	3	4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흥미 있을 것이다.	1		2		3		4
2.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조용한 음악이 있는 장소보다는 신나는 음악이 크게 나오는 장소가 더 좋다.	1		2		3		4
3. 음악을 들을 때, 나는 시끄러울 정도로 크게 듣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4. 나를 놀라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영화가 좋다.	1		2		3		4
5.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연기하는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6. 만약 내가 유원지에 간다면, 청룡열차나 혹은 속도가 빠른 것을 타기를 좋아한다.	1		2		3		4
7. 나는 익숙한 곳보다는 낯선 곳이나 멀리 떨어진 곳을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8. 나는 알려지지 않은 대륙의 첫 번째 탐험가가 되고 싶다.	1		2		3		4
9. 나는 폭파장면과 자동차 추적 장면이 많은 영화를 좋아한다.	1		2		3		4
10. 울퉁불퉁한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싶다.	1		2		3		4
11. 일반적으로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보다는 시간이 촉박할 때 일을 잘한다.	1		2		3		4
12. 나는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13. 자동차가 사고 난 장면을 보는 일은 재미있다.	1		2		3		4
14. 나는 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기를 좋아한다.	1		2		3		4
15. 나는 높은 장소의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 | | | | | | |
|-----|---|---|---|---|---|
| 16. | 만약 무료로 달이나 다른 행성을 가볼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면, 나는 제일 먼저 신청할 것이다. | 1 | 2 | 3 | 4 |
| 17. | 전쟁 중에 전쟁터에 있는 것은 틀림없이 흥미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 18. | 나는 친구들과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임보다는 떠들썩한 모임이 더 좋다. | 1 | 2 | 3 | 4 |
| 19. | 나는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 낯선 도시나 낯선 지역을 혼자서 돌아다니고 싶다. | 1 | 2 | 3 | 4 |
| 20. | 나는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보고 싶다. | 1 | 2 | 3 | 4 |
| 21. | 나는 전에 본 영화는 다시 보지 않는다. | 1 | 2 | 3 | 4 |
| 22. | 나는 친구로서 엉뚱한 사람이 좋다. | 1 | 2 | 3 | 4 |
-

부록 8.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신경증 척도

◆ 다음 문항 중 나를 설명하는 것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예	아니오
1. 특별한 이유 없이 비참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짜증을 잘 냅니까?	예	아니오
3. 감정이 쉽게 상합니까?	예	아니오
4. 자주 싫증이 납니까?	예	아니오
5. 죄책감 때문에 자주 고민합니까?	예	아니오
6. 당신은 스스로 신경이 과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7.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8. 당신은 스스로 긴장이 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9. 별 이유 없이 자주 맥이 풀리고 피로해집니까?	예	아니오
10. 신경과민으로 고생합니까?	예	아니오
11. 외롭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까?	예	아니오
12. 화를 잘 냅니까?	예	아니오

부록 9. 대처 양식 척도

◆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 일을 다루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각 항목에서 적당한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약간 사용한다	보통으로 사용한다	많이 사용한다	아주 많이 사용한다
1	2	3	4	5

	내용	전혀 사용하 지 않는다	약간 사용한 다	보통으 로 사용한 다	많이 사용한 다	아주 많이 사용한 다
1.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더 잘되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2.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1	2	3	4	5
3.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2	3	4	5
4.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1	2	3	4	5
5.	시작 때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낸다.	1	2	3	4	5
6.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발견한다.	1	2	3	4	5
7.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방해받지 않도록 애쓴다.	1	2	3	4	5
8.	궁지를 가지고 꾀꾀이 버티어 나간다.	1	2	3	4	5
9.	그 일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내려고 협상하거나 타협한다.	1	2	3	4	5
10.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1	2	3	4	5
11.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1	2	3	4	5
12.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13.	이 일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한다.	1	2	3	4	5
15.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1	2	3	4	5
16.	잠시 거기에서 물러나 있다.	1	2	3	4	5

부록 1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 다음은 당신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사건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각 사건이 **지난 1년 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왼쪽에 있는 경험 빈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사건(경험 빈도에서 1 이상)에 국한해서 **그 사건에 대한 중요도를 오른쪽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중요도는 당시 그 사건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했었나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전거가 고장났다.				
경험빈도: 그 사건을 얼마나 빈번하게 경험했습니까?	전혀 0	조금 1	상당히 2	매우 3
중요도: 그 사건이 그 당시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전혀 0	조금 1	상당히 2	매우 3

경험빈도					내용	중요도				
전혀	조금	상당히	매우	전혀		조금	상당히	매우		
0	1	2	3	1. 취업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2. 졸업 후 취직을 못할 것 같아 걱정했다.	0	1	2	3		
0	1	2	3	3. 진로와 취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0	1	2	3		
0	1	2	3	4. 사회적 편견(예: 성별, 학교)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0	1	2	3		
0	1	2	3	5. 이성 친구와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다.	0	1	2	3		
0	1	2	3	6. 이성 친구가 나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7. 이성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	0	1	2	3		
0	1	2	3	8. 이성 친구와 헤어졌다.	0	1	2	3		
0	1	2	3	9.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대학생살이 위축되었다.	0	1	2	3		
0	1	2	3	10. 학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0	1	2	3		
0	1	2	3	11. 용돈이 부족해서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0	1	2	3		
0	1	2	3	12.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취미생활을 충분히 할	0	1	2	3		

				수 없었다.				
0	1	2	3	13. 부모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싸웠다.	0	1	2	3
0	1	2	3	14.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0	1	2	3
0	1	2	3	15. 집안 식구가 나에게 불필요하게 간섭했다.	0	1	2	3
0	1	2	3	16.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0	1	2	3
0	1	2	3	17. 친구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0	1	2	3
0	1	2	3	18.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0	1	2	3
0	1	2	3	19. 교수의 인격에 대해 실망했다.	0	1	2	3
0	1	2	3	20. 교수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다.	0	1	2	3
0	1	2	3	21. 교수의 불성실한 강의 때문에 학습의욕이 저하되었다.	0	1	2	3
0	1	2	3	22. 나의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회의에 빠졌다.	0	1	2	3
0	1	2	3	23.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방황했다.	0	1	2	3
0	1	2	3	24.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0	1	2	3
0	1	2	3	25. 공부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0	1	2	3
0	1	2	3	26.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27.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0	1	2	3
0	1	2	3	28.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적성을 알 수 없어서 고민했다.	0	1	2	3
0	1	2	3	29.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했다.	0	1	2	3
0	1	2	3	30.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가족들의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0	1	2	3
0	1	2	3	31. 사회적 불안정(예: 정치, 경제 등) 때문에 직장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0	1	2	3
0	1	2	3	32. 이성 친구와 말을 하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33. 이성 친구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았다.	0	1	2	3
0	1	2	3	34. 집안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0	1	2	3
0	1	2	3	35. 사 입고 싶은 옷을 살 돈이 없었다.	0	1	2	3

0	1	2	3	36.	경제적으로 친구들과 수준 맞추기가 힘들었다.	0	1	2	3
0	1	2	3	37.	가족으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았다.	0	1	2	3
0	1	2	3	38.	부모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39.	형제나 자매와 심하게 싸웠다.	0	1	2	3
0	1	2	3	40.	친구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당했다.	0	1	2	3
0	1	2	3	41.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귄 수 없었다.	0	1	2	3
0	1	2	3	42.	교수가 나의 인격을 무시했다.	0	1	2	3
0	1	2	3	43.	교수의 강의가 산만해서 요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0	1	2	3
0	1	2	3	44.	교수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안목을 얻을 수 없었다.	0	1	2	3
0	1	2	3	45.	확고한 인생관이 없어서 방황했다.	0	1	2	3
0	1	2	3	46.	이상과 현실간의 격차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다.	0	1	2	3
0	1	2	3	47.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0	1	2	3
0	1	2	3	48.	성적이 나쁘다.	0	1	2	3
0	1	2	3	49.	전공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50.	중요한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	0	1	2	3

부록 11. 대인관계 만족도 검사(Tes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 다음은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전혀 그렇 지 않다	1	2	3	4	5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1	2	3	4	5
1. 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1	2	3	4	5					
2. 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한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4.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으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5.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만족스럽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생각, 느낌, 희망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곤 한다.	1	2	3	4	5					
7.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마다 못 마땅해 한다.	1	2	3	4	5					
9.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1	2	3	4	5					
10. 부모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	1	2	3	4	5					
11. 부모님은 나의 일에 너무 무관심하다.	1	2	3	4	5					
12. 부모님은 나를 믿지 못하고 화를 많이 내신다.	1	2	3	4	5					
13. 나는 교수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	2	3	4	5					
14. 교수님들이 불공평하고 차별대우 한다.	1	2	3	4	5					
15. 나는 교수님들 앞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1	2	3	4	5					

않다.

- | | | | | | |
|---|---|---|---|---|---|
| 16. 대부분 교수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 1 | 2 | 3 | 4 | 5 |
| 17.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교수님이 있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18. 성의와 실력이 있는 교수님들이 많다. | 1 | 2 | 3 | 4 | 5 |
| 19. 나는 교수님께 믿음이 가고 의지하고 싶다. | 1 | 2 | 3 | 4 | 5 |
| 20.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괴롭다. | 1 | 2 | 3 | 4 | 5 |
| 21. 나는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 1 | 2 | 3 | 4 | 5 |
| 22.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하다. | 1 | 2 | 3 | 4 | 5 |
| 23.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고독감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 24. 친구를 사귈 때에는 내가 먼저 나선다. | 1 | 2 | 3 | 4 | 5 |
| 25. 나는 모임에서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 1 | 2 | 3 | 4 | 5 |
| 26. 친구들과 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다. | 1 | 2 | 3 | 4 | 5 |
-

부록 12.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 아래에는 당신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다섯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1~7 사이의 숫자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1	2	3	4	5	6	7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1	2	3	4	5	6	7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1	2	3	4	5	6	7

부록 13.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 척도

◆ 다음의 단어들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세 달 동안**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해주 시기 바랍니다.

1.	지루한	1	2	3	4	5	6	7	재미있는
2.	비참한	1	2	3	4	5	6	7	즐거운
3.	쓸모없는	1	2	3	4	5	6	7	가치 있는
4.	외로운	1	2	3	4	5	6	7	화목한
5.	공허한	1	2	3	4	5	6	7	충만한
6.	비관적인	1	2	3	4	5	6	7	낙관적인
7.	보람 없는	1	2	3	4	5	6	7	보람 있는
8.	행운이 없는	1	2	3	4	5	6	7	행운이 따르는
9.	실망스러운	1	2	3	4	5	6	7	만족스러운
10.	불행한	1	2	3	4	5	6	7	행복한

부록 14. 학업 적응도

◆ 지난 3개월 동안 음주로 인해 지각한 평균 횟수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다	월 1회	주 1회	주 2~3회	거의 매일
1	2	3	4	5

◆ 지난 3개월 동안 음주로 인해 결석한 평균 횟수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다	월 1회	주 1회	주 2~3회	거의 매일
1	2	3	4	5

◆ 지난 학기 평균 학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B	C	D	F
1	2	3	4	5

부록 15. 심층면담 질문목록

문제음주 개선집단	문제음주 지속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술을 드시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술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술을 마신 후 긍정적인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 술을 마신 후 부정적인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 술을 처음 접하게 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본격적으로 술을 드시게 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개인적으로 술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을 줄여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술을 줄일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 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인가요? • 술을 줄인 후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술을 줄이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Abstract

Predictors of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problem drinking students

Ahreum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blem drinking is a multifaceted construct defined by three aspects, i.e., drinking quantity, frequency and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whether predictors of problem drinking differ by gende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mong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based upon the categorization of ‘developmentally limited versus persistent alcoholism’ subgroups in early adulthood, the present study tried to explore predictors of persistent problem drinking.

Study 1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predictors influencing drinking quantity, frequency and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between gende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nsation seeking, neuroticism). Self-reported data were collected from 268 college students.

Results showed that peer influence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drinking quantity and frequency for both genders. There were gender-specific effects in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These were significantly predicted by enhancement drinking motive and problem-focused coping strategy for male while negative alcohol expectancy and coping drinking motive for female. With respect to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rinking quantity and frequency have th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in a male-student sample but not in a female sample. The three aspects of problem drinking did not predict adaptation level but problem-focused coping strategy, neuroticism, and stress have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Study 2 aimed at focusing more on the developmental subgroup issue i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by qualitative method. Nine participants with problem drinking history were recruited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persistent versus developmentally limited problem drinking group according to their current drinking state. Through intensive interview, the author attempted to delineate and vividly understand variables involved in the change and continuation process in problem drinking.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es based on ground theory, difficulty in self-expression have been found in persistent problem drinking group. The group also tends to drink when coping with negative affective states such as shyness, anxiety and evaluate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as positiv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predictors of problem drinking throug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On the who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blem drinking students who have vulnerability in terms of personality and coping strategies are the subgroup prone to persistent problem drinking and thereby need more closer clinical observation.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problem drinking, personality, alcohol expectancy, drinking motives, coping strategies, qualitative research

Student Number : 2014-20233